

12. 2월 + 0
2월 17
3



2020 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채인화

이 달 의 표 지 작 가

홍익대 디자인콘텐츠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6년부터 3년간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2017년 <곰 밤이온다>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었고,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 이탈리아 시에나 국제교류전 <KOSI, IL BENE COMUNE 공동의 행복>, 이천세라피아 세라믹스창조센터 <도자, 꽃과 함께>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며 작품 세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소한 앎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명제는 나의 작업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대주제이며 근원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답할 수 있는 자아, 소통, 사랑, 치유, 사유라는 꽤 심플한 단어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망하는 흔한 소재가 되어버렸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 갈망은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운명은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의 시간 속에서 희열과 행복을 맛보기도 하고 오랜 시간 헤매며 슬픔과 고통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여무는 것처럼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낸 나는 비로소 그때의 나를 인정하고 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년의 시간들이 모여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깨달았고, 나는 운명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소통의 부재로 일상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쉼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간의 작품들은 수직의 길이감이 있는 거대한 몸통을 뾰족한 날들이 휘감고 있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완벽하게 푸르지 않고, 붉지만 검은 색감을 가지고 있으며, 거미줄처럼 엉킨 모습이 거나 끌어서 부풀어 오른 표면이 드러난, 육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덩어리로 표현했다. 나의 작품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그 순간의 감정을 꺼내는 반복의 산물이다. 번조를 통해 고착된 형태가 더 이상 변하거나 자라거나 작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통해 내 안에 내재된 갈등과 갈등이 하나씩 소멸해나가고 있음을 표현했다. 두려움을 떨쳐내려 했던 반복 행위의 소산물이 가득 찬 사유공간을 가시화하는 과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원천, 근원을 계속 찾아가려 한다.



1



2

표지 작품

〈MOXNOX table #1, MOXNOX light #6〉

도자기, handbuild | T48×48cm, L12×16cm | 2017

—

1 〈검은 꽃 #3〉 도자기, handbuild | 45×49cm | 2019

2 〈MOXNOX stool #1, MOXNOX light #1〉 도자기,
handbuild | T57×60cm, L31×52cm | 2017

3 〈검은 숲〉 도자기, 시멘트, handbuild |
가변설치(320×170cm) | 2014



3



16

사람과 사람

- 20 문화인 배우 정동환
- 26 작가의 방 김효찬 그림작가 · 이오진 연출가
문병남 안무가 · 이아람 대금 연주자
- 30 진실 혹은 대담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 간담회
- 36 예술가의 밥그릇 피규어 원형사(Figure Sculptor) 전연선
-
- 38 서울 찰나

44



-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채인화

테마 토크

문화예술계, 밀레니얼 세대와 오팔 세대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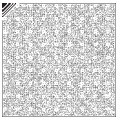
- 06 칼럼
밀레니얼 세대와 오팔 세대에 대하여
- 08 리포트
밀레니얼 세대와 오팔 세대의 창작자들
- 12 인터뷰
탐블벅 염재승 대표
- 16 현장취재
세대 불문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



20

이슈 & 토픽

- 40 쟁점 1 건축물 미술품 둘러싼 지자체 - 작가 간 갈등
- 42 쟁점 2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논란
- 44 화제 1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 46 화제 2 공연장 식음료 반입 허용



52



공간, 공감

- 48 공간 1 중립창고
- 50 공간 2 문화공간 이육사
- 52 공감 1 뮤지컬 〈빅 피쉬〉와 〈웃는 남자〉
- 54 공감 2 전시 〈톨루즈 로트렉〉과 〈알폰스 무하〉
- 56 공감 3 책 〈극야행〉과 〈인듀어런스〉
-
- 58 예술적 상담소

64



SOUL OF SEOUL

- 60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하다 ⑮
남대문 시장 건너편, 양동 4지구에 묻힌 시간
- 62 고재열의 썰(說) 기자직에 대한 단상
- 64 서울 건축 읽기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66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아시아 아르헨토 감독의 〈아리아〉

WEBZINE +

- 70 웹진 [비유] 특별한 재희
- 72 웹진 [연극in] 공연티켓 예매사이트 '플레이티켓'
- 74 웹진 [춤:in]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만난 사람, 차진엽

- 76 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씨네21(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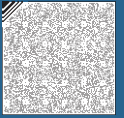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http://magazine.sfac.or.kr
발행일 2020년 1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밀레니얼

세대와





IT 활용에 능하고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라 할 수 있는 2030 밀레니얼 세대, 은퇴 시기를 맞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지닌 노년층을 일컫는 오파 세대. 이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생각과 문화는 다르지만 부모와 자녀 세대라는 이름으로 교집합을 이루고 즐거운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주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들 세대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창작자 혹은 향유자로 부각 중이다. 2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와 오파 세대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다른 듯 비슷한 이들 세대가 함께 이용할 만한 공간 등도 소개한다.

오파 세대가 온다



소비와 창작의 중심에 서다



//////
밀레니얼 세대와 오팔 세대에 대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크고 굵직한 변화를 숨 가쁘게 가로질러 온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존재감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정치·문화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마스크이나 대중 저널, 학계를 막론하고 앞을 다투어 세대 관련 논의를 쏟아내고, 흡수저, 울로족, 개저씨, 노인층 등 특정 연령대나 문화권에 속한 이들을 규정하는 신조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며 공론의 장으로 유입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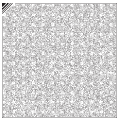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 풍부한 문화자본 갖춘 디지털 네이티브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현 시점에서 대략 20~30대의 청년들이다. 새로운 천 년을 목전에 둔 1991년, 미국 세대 전문가인 닐 하우와 윌리엄 스트라우스가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부여한 명칭이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이들 세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됐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켰다고 해서 '에코 붐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인구 비중이 큰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췄다.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붐 세대의 뜨거운 교육열은 1980년대 20%대에 불과했던 대학 진학률을 75%까지 끌어올렸으며, 자녀를 위한 희생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 어느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은 IT 활용에 능하고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생적인 글로벌리스트로 성장했다. 또한 사회적 성공보다는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소비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해 기꺼이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내보인다.

오팔 세대: 처음으로 자신만의 행복한 노년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보석 세대

최근 신조어로 주목받고 있는 오팔(OPAL) 세대는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노인 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약자로 오팔은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부머를 대표하는 1958년 개띠생과 보석 오팔의 오색찬란함이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은퇴



밀레니얼 세대와 오파 세대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주요 세대로 떠올랐다. (자료사진, 코엑스를 '별마당 도서관' 전경)

시기를 맞고 있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정도의 연령대로, 베이비붐 세대라는 명칭에 걸맞게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한다. 또한 젊은 세대 못지않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면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파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생애 처음으로 자신들의 길어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해야만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긍정적 버전이다. 평균 기대 수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이 청년이던 시절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50대 중반에 불과해 으레 60세가 되면 죽을 것이라 생각했고, 때문에 별다른 노후 대책을 세우지도 꿈꾸지도 못했다. 그런 그들에게 현대 의학이 가져온 평균 수명의 연장은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삶을 맞닥뜨리게 했다. 이런 부모 세대와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신체적 안전과 절대 빈곤에서의 탈출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경제적 풍요 속에서 문화적

수혜를 받으며 자랐기에 안정적이고 운택한 노후를 꿈꾸게 되었다.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직장 생활과 자녀를 뒷바라지로부터 해방되어 그동안 찾지 못했던 자아와 꿈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노년기 모델을 제공하는 진정 보석 같은 오파 세대가 만개하길 바란다.

세대 격차를 넘어서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도 '요즘 애들은...'으로 시작되는 상형문자가 남아 있다고 하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라는 이분법적 형태의 세대 구분과 갈등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경합을 벌여온 역동적인 개념을 찾기는 어려울 듯싶다. 특히 이러한 이분법적 세대 구분은 '신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던 1990년대 초에 크게 증가했고, 기성세대와 대비하여 젊은 세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 골몰해왔다. 젊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흡수하고 함께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문화예술계의 주요 창작·향유자로 주목받고 있는 오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더불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라는 오랜 이분법적 지형과 경계를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글 최셋벨_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밀레니얼 세대



〈탱크〉 전시 전경.(아트선재센터 제공, 사진 김연제)

를 밖에서 상상하라



밀레니얼 세대와 오파 세대의 창작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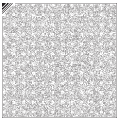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 세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은퇴 후 새로운 활동과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5060 세대인 오파 세대. 최근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꼽히는 두 세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세대에서 주목할 만한 창작자들을 통해 이들이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예술의 모습을 살펴봤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세대'답게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문화예술에 적응하고 있으며, 오파 세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숨어 있던 문화예술 욕구를 발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김희천 작가

김희천 작가(1989년생)는 데뷔 때부터 게임 등을 이용한 가상현실(VR)을 소재·주제로 작업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 자신만의 특성을 거침없이 드러내왔다.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이 자기 세대의 신문물인 TV와 방송 시스템을 활용했다면 김희천은 게임과 VR 등을 활용한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진행되는 개인전 〈탱크〉에서는 김희천만의 특징이 온전히 드러났다. 김희천은 잠수부들이 시뮬레이션 훈련에 쓰는 '감각 차단 탱크'를 영상작품으로 만들었다. 암흑과도 같은 3층 전시장을 더듬어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영상을 마주하게 된다. 영상 속에서 그는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가는데, 시각·청각·후각 등 신체의 감각이 사라져 감각 차단 탱크에서 온전히 자신의 정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관람객의 시선도 작가와 같아 공감에 증폭된다. 관람객도 함께 가상인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김희천은 기술이 발달해 기술의 존재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현상과 함께 이것이 인간의 계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시간이 신체를 감각할 기회를 점점 상실하게 될 수 있는 미래를 밀레니얼의 눈으로 바라봤다.



김동식 작가

정식으로 등단하지는 않았지만 반전을 거듭하는 독특한 짧은 소설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가 있다. 김동식 작가(1985년생)는 2016년 5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공포게시판'에 '복날은 간다'라는 아이디어로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 2~3일에 한 번씩 짧은 소설을 써냈다. 이렇게 써낸 무려 300편 이상의 작품은 지난 2017년 첫 단행본 〈회색인간〉으로 출간됐고,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김 작가는 이후에도 꾸준히 출간을 하고 강연 활동을 이어가면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글쓰기 공부를 한 적 없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성수동 주물공장 노동자라는 것이다. 김 작가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공포게시판’에서 미스터리한 글을 보는데 취미였는데 용기 내 글을 한 번 쓰게 된 후 그 사이트 유저들의 댓글과 관심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인도 표류, 환생, 로또 당첨 등을 소재로 생각지 못한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그의 글 원천은 10년 이상의 공장 생활에서 얻은 잡생각이다. 오랜 시간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없이 벽을 보며 단순 작업을 하면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정의하는 작가는 “한 명이라도 봐주는 글을 쓰는 이”이다. 블로그든 사이트든 글을 쓰는 곳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글을 봐준다면 나도 작가’라는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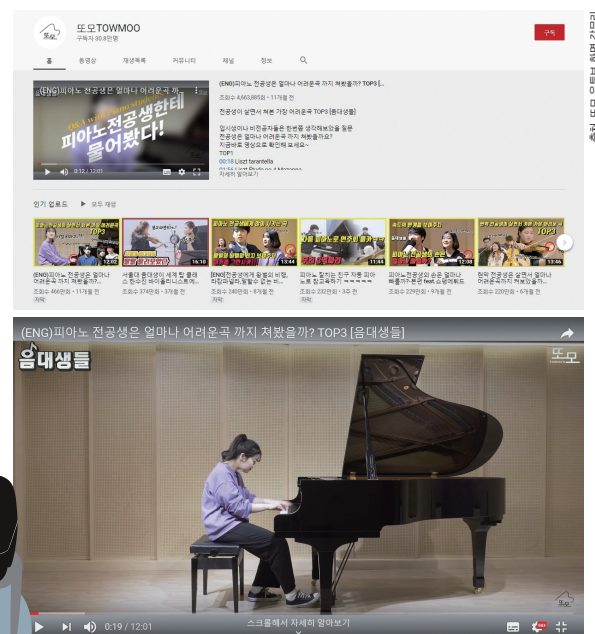
김동식 작가



클래식 음악 유튜브 '또모'(TOWMOO)

클래식 음악 콘텐츠는 전문가들의 연주와 인터뷰, 해설 영상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도 밀레니얼 세대와 만나면 쉽고 재밌어질 수 있다. '모바일 세대를 위한 음악인 콘텐츠'를 표방하는 클래식 음악 유튜브 '또모'가 대표적이다. 구독자 수 30만 명을 자랑하는 '또모'는 '피아노 전공생이 처분 가장 어려운 곡'이라는 콘텐츠로 조회 수 465만 건을 기록하는 등 클래식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클래식을 확산하며 화제가 됐다. '베토벤처럼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아노를 쳐본다면'과 같은 콘텐츠나 피아노, 현악기, 성악까지 클래식 음악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다뤘다.

'또모'의 운영진은 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백승준 대표(1998년생)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음대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연주부터 영상 편집까지 직접 해 유튜브에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이들의 목표는 클래식을 전혀 모르는 대중에게도 클래식을 흥미롭게 알려주고, 클래식 장벽을 낮추는 것. 운영진들은 유튜브의 댓글을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이 원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을 제작하는 등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 유튜브 '또모'의 화면

오 팔 세 대



출처: 서울경제 DB

모델 김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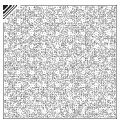
60대 모델 김철두(1955년생)는 “나의 늙음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늙었기 때문에 모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2018년 3월 63세의 나이에 모델로 데뷔하면서 최근 시니어 모델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는 어린 시절 모델 일을 하고 싶어서 기웃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공사판 막노동꾼에서 생선장수, 순댓국밥집 사장까지 굴곡진 인생을 거쳤다. 2017년 11월 사업이 망하면서 망연자실해하던 찰나, 딸의 권유로 시니어 모델 학원을 다니면서 모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연히 모델이 된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7만 명이 넘었고, 방송 출연 섭외와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얼굴 주름이나 머리 염색을 하지 않은 백발 등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젊어 보이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닌 자연스러움이 그가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다. 그는 오 팔 세 대를 향해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도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본들 안 되더라도 괜찮다”고 그는 말한다.

패션 유튜버 장명숙

장명숙(1952년생)은 우리나라의 첫 이탈리아 밀라노 유학생으로 유명 디자이너이자 바이어였다. 그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는 2개월 만에 20만 구독자를 모았다. 그가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에 20~30대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지적인 여자를 위한 옷’ 같은 패션 팁을 선보이기도 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한 워킹맘으로서의 비법을 전하기도 하는 등 인생 상담에도 적극적이다. 패션업계 종사자였던 만큼 옷장에 화려한 의상이 가득할 것 같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입었던 셔츠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마용실에 가지 않고 직접 머리 손질을 하는 검소한 모습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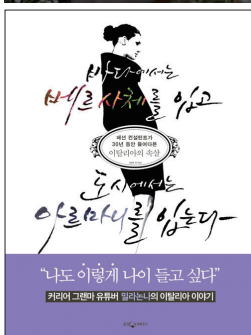




출처: 밀라노나 유학길에 올라 패션 바이어이



출처: 밀라노나 유학길에 올라 패션 바이어이



출처: 김현진씨네하우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1978년 밀라노 유학길에 올라 패션 바이어이자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다. 한국-이탈리아 교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까지 받았다. 은퇴한 후에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경력과 지혜를 나누고 최근에는 <바다에서는 베르사체를 입고 도시에서는 아르마니를 입는다>를 출간하는 등 본인이 쌓아온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있다. 화려한 전직 디자이너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꿈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온 굳건한 인생 선배의 진솔한 모습이 그가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다.



출처: 임택 블로그, 김우리



출처: 임택

여행 작가 임택

여행 작가 임택(1960년생)은 수입 오퍼상으로 지내온 인생 1막을 지나 여행 작가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가 여행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2012년 어느 날 서울 평창동에서 우연히 마을버스를 보고 나서였다. 힘들게 한 바퀴를 돌고 잠시 쉬는 것처럼 보였던 마을버스는 승객을 싣고 왔던 길을 또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임 작가는 문득 '우리의 인생이 마을버스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평생 미루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든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임 작가는 폐차를 6개월 앞둔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마을버스에 '은수'라는 버스 회사의 이름을 달아주고 은수와 677일간 7만km 이상을 여행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마을버스로 세계 곳곳의 문의 열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열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페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행이 낳아준 아들과 딸들은 내 여행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한다. 여행 작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펼친 그는 2017년 책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를 출간하고 강연·방송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글 김현진_서울경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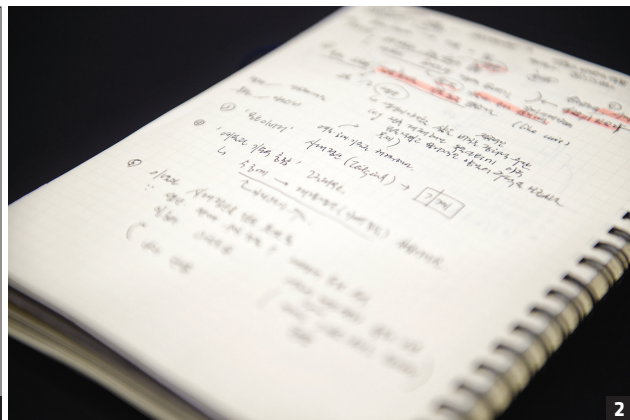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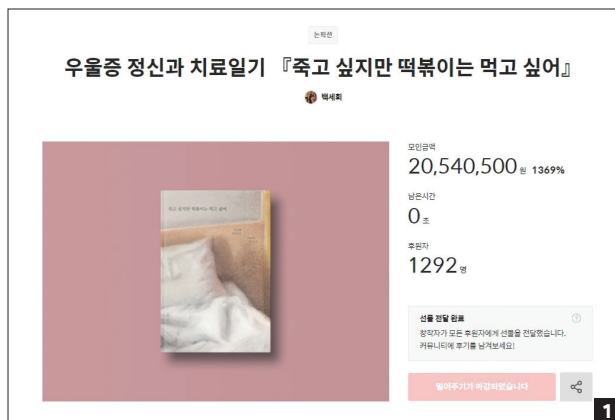
“부모 세대와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텀블벅 엄재승 대표



텀블벅은 창작자와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흡수가 빠르고, 기성품보다는 창작품을 선호하고, 가성비보다 중시하지만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로 이용한다. 텀블벅을 만든 엄재승 대표도 1988년생으로 밀레니얼 세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이던 2011년, 영화 제작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다 텀블벅을 창업했다.





1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출간을 위한 텀블벅 프로젝트 화면 갈무리.
2 영재승 대표의 노트.

원래는 영화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진로를 고민하던 중·고등학교 때가 한국영화가 잘나가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살인의 추억>이 나오고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상을 받는 걸 보고 영화가 미래라고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반지의 제왕>을 좋아했거든요. DVD를 보며 피터 잭슨 감독의 코멘타리를 듣는데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캠코더로 친구들과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와 시절에는 어땠나요?

저는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5살에서 7살 나이 차가 나는 동기가 많았어요. 그전까지 영화는 필름으로 찍는 게 당연했어요. 개인이 만들 수 없었고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2007년에 3,000만 원짜리 레드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당시 필름 카메라는 3억 원이 넘었거든요. 2006년 10월에는 구글에서 유튜브를 인수했고요. 저렴하게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거죠. 당시 저는 엄청 어린 축에 속했지만 앞으로 제작과 소비의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전까지 온라인 기반의 활동은 익명성이 있고 신뢰가 없었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있고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았어요.

영화를 만들어본 경험이 텀블벅을 운영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영화를 만드는 것과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보는 사람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영화는 협업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다들 예술가병에 걸렸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했어요.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고요. 제가 예술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예술가처럼 일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는 공동 작업이라 배우와 많은 스태프를 조율해서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업과 비슷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영화로 시작했지만 저처럼 다른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새로운 매체가 나오다 보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요. 영화계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친구들은 자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세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나눠주는 공공의 지원 방식은 몇 년째 거의 그대로이다. 그에 비해 텀블벅은 모든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들에게 상시로 열려 있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해 창작자를 지원한다. 많은 창작자들이 텀블벅을 통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지지를 받으며 활동을 이어간다. 이에 엄 대표는 지난 연말, 2017년부터 협업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후원인대상 프린티어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에서 텀블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당연한 루트로 생각해요. 저에게도 텀블벅을 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자금원 중 하나였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인 것이 큰 문제라고 봤어요.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한 예술가들이 자금을 구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기 힘든 구조예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하다가 텀블벅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텀블벅은 더 많은 창작자들이 공개된 곳에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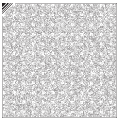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가 있나요?

2019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김예림의 EP 앨범 발매 프로젝트

‘LIM KIM EP 릴리즈’(www.tumblbug.com/supportlimkim)가 기억에 남아요. 원래 〈슈퍼스타K〉로 알려졌고 메이저에 가까운 영역에서 작업했는데, 독립을 선택하면서 텀블벅을 활용해 후원을 받고 팬덤도 확보하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전에는 인디, 마이너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호탄 같았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텀블벅에서 독립출판물로 나왔지만(www.tumblbug.com/lightshadow) 메이저 대형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경계가 허물어진 거잖아요. 초기 독립출판물에 이어 새로운 버전으로 정식 출간할 때도 텀블벅에서 펀드레이징을 진행했어요.(www.tumblbug.com/theblues)

후원자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젝트는요?

패션 분야에 ‘낫아워스’(Not ours)라는 비건 패션 브랜드가 있고요. 무대미술을 전공한 두 명이 하는 ‘참새잡화’는 연극적인 소품이나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상징적인 의상을 일상에서 쓰기 좋게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요. 이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매력이 있거나 가치를 진정성 있게 대변하는 프로젝트가 반응이 좋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환경뿐 아니라 '카드캡터 체리'처럼 1990년대생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도 공감도가 높고요,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일차적으로 반응이 오고, 리워드가 괜찮으면 더 많이 밀어주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참여해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을 바뀌기는 프로젝트로는 '언제 어디서든 신선한 필름, '전국 필름 자판기 설치'(www.tumblbug.com/filmlog)가 있었다. 펀딩 목표액을 달성할 때마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 자판기 한 대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인데, 693명이 참여해 2,000여만 원이 모이면서 전국에 네 대가 설치되었다. '일회용'이라 불리는 카메라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한 필름 현상소에서는 필름을 교체해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젊은 세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 입장에서 펀딩을 받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알리고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툴이 생겼어요. 후원자 입장에서는 직접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가치에 쉽게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취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술과 쉽게 돈을 지불하는 기술이 맞물려서, 지금 세대는 좋아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텀블벅 회원이나 직원들도 대부분 밀레니얼 세대인가요?
창작자와 후원자들은 20~30대가 많고 6:4 정도로 여성이 많아요. 회원은 15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인데요, 40대 이상도 있고 분포는 다양한 편이에요. 나이는 생물학적인 구분에 불과하고요. 나이보다는 어떤 문화의 수혜를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50대여도 또래로 느껴지고, 같은 세대여도 자라온 문화가 다르다면 너무 다르고요.

밀레니얼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세대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만큼 기회가 많지 않고 밥 벌어 먹고살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부모 세대들은 일자리를 잡거나 집을 사는 게 저희 세대보다 쉬운 편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젊은 세대

들이 예전의 프레임으로 보게 하고 부모 세대의 방식으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세대예요. 저희 세대를 다른 관점으로 봐준다면 덜 좌절하지 않을까요. 기성세대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세뇌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못 보는 다른 기회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똑같은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을 강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제작기술의 대중화는 영화뿐 아니라 출판, 게임, 제품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어요. 수동적인 소비자로 남는 게 아니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접 무언가를 만들고 팬덤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이전 세대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전 세대는 안정적이고 체계가 잡혀 있는 직장에 들어가 어느 단계까지 직급이 올라가는 루트였다면, 저희 세대는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기회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밀레니얼 세대와 창작자를 대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술을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거나 앞가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일이 개인적인 화두예요. 제가 영화를 한다고 할 때도 그런 관점이었거든요. 텀블벅을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문화예술은 돈이 안 된다는 것도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할 때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대 변화를 감지해도 한발 앞서 움직이기는 쉽지 않지만 옴 대표는 달랐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일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진 시대에 기성세대의 기준에 따라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취업에 매달린다. 예술을 하면 가난할 거라는 고정관념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젊은 세대와 예술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오계옥

취향을 공유하다

세대 불문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



‘취향’이 두 세대를 잇는 다리 구실을 할 때가 있다. 오늘날 이야기다. 5060 세대가 유유자적 쉴 수 있는 휴양지나 평생교육원 등의 배움터에만 익숙하리란 편견, 2030 세대가 마치 번덕스러운 날씨처럼 유행만 좇으리란 편견을 뒤로 한다면, 세대가 만나는 곳이 참 가까운 곳에 있다. 흑맥주 한잔 훌쩍이며 명작이 된 노래를 듣는 LP바, 머무름이 곧 예술이 되는 숙소, 향기로 시간을 잇는 공방과 취미를 공유하는 문구점 등 실제로 밀레니얼과 오팔 세대가 스스럼 없이 뒤섞인 문화공간들을 소개한다. 언제든 가볍게 떠나 볼 수 있는 곳이다.



바람 청명한 1월의 어느 주말. 엄마와 서울 여행을 계획해 떠났다. 서울로7017을 가로질러 중림동과 남대문을 오가며, 새해 속셈을 공유하고 배를 채울 심산이었다. 필자가 ‘어르신’을 위해 미리 골라둔 곳들이 그이를 지루하게 만든 건 금방이었다. “내 취향은 아냐.” 엄마가 말했다. 이른바 ‘오팔 세대’인 엄마는 뉴발란스를 신고 있었다. 심이 있어 여유로운 호텔 라운지보다 약동하는 골목을 걷고 신문을 영유하며 무언가 피부로 배우길 원했다. 밀레니얼 세대에 살포시 속하는 필자는 지도를 급히 수정했다. 가끔 들락거리는 맥주바와 복합문화공간, 독립서점으로 향했다. 취향합일, 비로소 모녀의 발길에 가속도가 붙었다.

압구정동의 오랜 LP바

피터 폴 앤드 메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몸집보다 큰 스피커가 사람을 맞는다. 층고 높은 벽면은 충천연색 레이블과 LP로 빼곡하게 채웠다. 모두 압구정동 LP바 ‘피터 폴 앤드 메리’의 상징이다.

양쪽 귀에 꼭 붙은 에어팟으로 듣는 음악은 편리한 맛이 있지만, 턴



테이블에서 진공관을 거쳐 공간과 고막을 감싸는 음악은 편안한 맛이 있다. 현장에서 주목받는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에 JBL 파라곤 음향 시스템 등은 '덕후'들에게 이미 유명한 모델들인 한편, 지나간 명곡을 현대로 소환하는 데도 최적이라서 '부모님과 가기 좋은 곳'으로 종종 거론되는 곳이다.

서울에서 드문 '기네스 마스터 퀄리티'를 보유한 집이기도 하다. 여윌틈에 기네스 한잔 훌쩍이며, 어느덧 고전이 된 노래들을 신청해 보면 어떨까. 듣고 싶은 곡을 종이에 적어 내면 실시간으로 LP를 올려준다. 신사동 가로수길과 5분 거리로 압구정성당 바로 옆에 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을 연다.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9)



추억과 현대의 복합문화공간

통의동 보안여관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도 시대별 안목과 유행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안여관'은 수많은 여관이 개발 논리에 밀려 지도에서 삭제되는 동안 복합예술공간으로 성장한 유서 깊은 곳이다.

보안여관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문을 열어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등 문인들이 다녀간 여관으로도 유명하다. 2004년까지도 손님을 받다가 문을 닫았는데, 현 최성우 보안여관 대표가 보안여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옛 골조를 살려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2017년 복합문화예술공간 '보안1942'를 나란히 신축해 카페, 책방, 게스트하우스를 층별로 마련했다.

모든 여행자들은 '현대'받을 자격이 있다. "박제된 역사 속 방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 쉬는 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최 대표의 의도대로 객실마다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예술가들이 집을 풀고 숙박계를 써왔다. '호캉스'를 즐기는 도시 여행객들이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머물러볼 만하다. (종로구 효자로 33)





향으로 시간을 잇는 향수공방

프루스트

‘향기가 기억을 이끌어낸다’는 프루스트 현상을 아는가. 하나의 작은 감각이 연결된 전체 기억을 재생시킨다는 내용이다.

명륜동 향수공방 ‘프루스트’는 우연히 맡은 향기가 무의식의 기억을 찾아가며, 이 순간의 향을 ‘캡처’하듯 조제해 미래로 이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손으로 무언가 창조하고 싶은 사람들, 과거부터 미래를 직관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손님들이 세대 불문하고 찾아온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공방은 한적한 골목 깊숙이 위치해 있다. 중정엔 그림 같은 조형물이, 안채엔 향수병들이 일렬로 놓여 있어 작은 실험실이나 소박한 박물관 같다. 내게 맞는 향을 직관적으로 찾아 시향하고 계량하며 조향사의 지시를 따라가는 동안 향은 물론 나에 대한 이해도 조금 깊어진다. 직접 조제해보려면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 (종로구 창경궁로26길 38-3)

필기 덕후들의 문화공간

포인트 오브 뷰

문진, 연필, 지우개, 책갈피 등 디지털 기기에 한동안 밀려난 필기구들이 책상으로 하나둘 회귀 중이다. 과거 문구점들이 ‘지는 업종’의 대표주자로 꼽혀왔던 사실이 무색하게, 오늘날 문구점들은 이른바 ‘힙한 것’을 찾는 젊은 손님들에게 호평받으며 덩달아 남녀노소 문구 덕후들을 불러 모은다.

성수동에 있는 문구점 ‘포인트 오브 뷰’는 평일에도 주말 같은 인기를 누릴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잦다. 어린 시절부터 문구 덕후로 자랐다는 김재원 대표가 직접 큐레이팅하며 문구 장인들의 ‘작품’을 전 세계에서 수집했다. ‘큐레이션 노트’를 따로 두어 물건의 뒷얘기를 전한다.

시필지에 사각사각 소리 내며 연필을 써보고, 서지 향을 재현한 양초도 구경해보자. 노트 등 필기구부터 수첩까지 감각적인 도구들, 옛 추억 물건 풍기는 스티커와 사무용품 구경에 눈이 즐겁다. 문구류 외에 디자이너들과 협업으로 만든 문진, 도장, 모빌 등 다양한 제품을 보는 재미도 있다. (성동구 연무장길 18 2층)





헌책부터 독립출판물까지

서울책보고

건다가 마추친 헌책 앞에서 '아!'라는 감탄사를 내뿜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가라시 유미코의 만화 <캔디 캔디>나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 등 추억과 고전을 대표하는 헌책들이 상자째 또는 노끈에 묶여 팔려나가는 이곳. 지난해 3월 송파구에 개관한 '서울책보고'다. 1,465㎡(443평)의 공간에 헌책과 독립출판물 등 13만여 권을 가득 채웠다. 헌책 경매가 열리면 절판 잡지, 만화, 동화와 1700~1800년대 조선시대 고서 및 일제강점기 도서까지 구경할 수 있다. 방대한 서적도 볼거리지만 꿈틀꿈틀 움직이는 애벌레를 형상화한 실내 디자인도 독특하다. 29개 헌책방이 위탁한 책을 한곳에서 보고 살 수 있어 기존 헌책방과 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실을 한다. 배움에 목마른 오파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물론 유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까지 무난하게 머물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매달 열리는 문화·전시 프로그램도 유용하다. '서울책보고 어린이 동화전-〈상상의 나라〉'가 3월 1일까지 열린다. (송파구 오금로1)



멋을 만드는 남성들의 공간

트루핏앤힐

'바버'란 이발사를 말한다. 포마드로 한껏 멋들어지게 올린 머리, 가위질로 재단한 듯 살린 두상. '바버'들이 만든 스타일은 할리우드 흑백영화 속 배우들처럼 멋을 한층 끌어올린다. 바버숍 '트루핏앤힐'을 찾는 남성 손님들은 단정한 머리스타일을 추구하는 30대부터 나를 가꾸는 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70대까지 다양하다. 브랜드는 영국에서 왔다. 1805년 런던에서 시작해 2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왕실 전담 바버숍에서 출발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버숍'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본사에서 교육받은 바버들이 한국에 1호점을 낸 건 2017년이다. 바버숍이란 개념보다 미용실이나 이발소의 정서가 익숙하던 터에 '영국 상류층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콘셉트,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들인 스타일링 등이 화제를 모았다. 멋을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머리스타일 외에도 향수나 셰이빙 등 남성 꾸밈에 대한 조언과 제품을 구할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면 15% 할인해준다. (강남구 선릉로158길 5)

글·사진 전유안_칼럼니스트







연극의 심연을 향한 끝없는 항해

배우 정동환

흔히 노년의 배우라고 하면 특정 캐릭터가 연상되게 마련이지만, 배우 정동환은 오히려 이러한 편견을 뛰어넘어 연극계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만으로 일흔 살을 맞은 지난해에는 연극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 〈고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하며 노익장을 과시했고,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9회 아름다운 예술인상'(SACF)에서 연극예술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는 연기혼으로 연극의 심연을 향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영원한 현역의 늙지 않는 연기

지난해 11월 8~10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한 이보 반 호브의 연극 〈로마 비극〉은 독특한 관람 풍경으로 회자될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세 작품 〈코리올레이너스〉,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엮어 만든 5시간 30분짜리 대작. 특히 기존 인식과 다른 새로운 공연 관람 경험을 제공했다. 관객들은 러닝 타임 동안 자유롭게 무대와 객석을 옮겨가며 원하는 위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가능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을 바로 코앞에서 마음껏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로마 비극〉 첫날 공연에서 한국 연극 관객이라면 흥미로워할 정경이 빚어졌다. 연기하는 외국 배우들 사이에서 배우 정동환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무대 중앙 의자에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배우들의 연기, 관객들의 표정, 무대 전체를 훑아보고 있었다. 연기를 하지 않고 관객들 틈에 섞여 있는 그의 모습 자체가 한국 관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연극처럼 보였다. “이런 것이 ‘연극적 교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극 안에 직접 들어가서 보는 이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고전이 정말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들었죠. 형식적으로 이상을 맞추는 것이 아닌, 과연 연극이 무엇이어야 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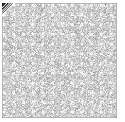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린 1월 10일 낮 대학로에 위치한 대학로 서울문화재단(구, 동숭아트센터)에서 만난 정동환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 비극〉의 경험에 대해 뜨겁게 이야기했다. 갓 연극을 경험한 ‘열혈 청년’처럼 아직까지 설레는 눈빛이었다. “귀한 경험이었어요. 이 작품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공연 개막 석 달 전에 예매했거든요. 많이 기다렸는데,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하.”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등 산행을 자주 다니는 정동환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주로 그리스·로마 여행을 다녔다. 그리스·로마 옛 이야기에 빠져 탐나는 대로 여행을 하며 역사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로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가시나무새〉로 유명한 호주 작가 콜린 매컬로의 대하소설 〈마스터스 오브 로마〉도 완독했다. 한국어판이 무려 22권인 작품으로 인터뷰 당일 아침까지 책의 마지막 부분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읽고 나왔다며 미소 지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연극 이야기로 귀결된다. “역사를 공부하며 여행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극장이



예요. 세상의 모든 극장을 다 돌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제 인생이 연극에 빚을 졌잖아요.”

정동환은 연극에 출연하지 않는 날에도 연극에 빠져 산다. 관객으로서 여러 작품을 섭렵하고 다닌다. 작년 9월 서울 성수동 우란문 화재단에서 국내 초연한 연극 〈사랑의 끝〉을 인상적인 관람 작품으로 꼽았다. 배우 문소리와 지현준이 주연한 2인극이다. 전반부는 남자의 독백, 후반부는 여자의 독백 등 두 개의 긴 독백만으로 이뤄진 작품인데 두 배우가 각각 1시간가량을 혼자서 쉬지 않고 대사를 쏟아내야 한다. 정동환은 두 배우의 연기와 함께 무대 연출에 높은 점수를 줬다. “두 명만 출연하는데도 공연장의 5분의 4를 텅 비워놓고 무대로 썼어요. 객석도 늘리지 않고 딱 120석만 팔았죠. 이걸 위대한 일이에요.”

이미 정동환은 한태숙 연출과 작업한 연극 〈레이디 맥베스〉에서 이런 신념을 지키는 순간을 목도했다. 2016년 창극으로도 공연한 〈레이디 맥베스〉는 한 연출이 이끄는 극단 물리가 1998년 초연했다. 왕위를 찬탈하나 양심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스스로 파멸하는 장군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막후 조종자인 맥베스 부인에 초점을 맞



“연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가치가 값보다 우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연극 정신은 위대합니다.”



1,2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공연 모습.

취 새로 구성한 작품이다. 찰흙과 밀가루로 범벅이 된 채 온몸으로 열연하는 정동환은 이 연극의 초창기부터 계속 맥베스를 맡아왔다. 매번 매진되는 연극이라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게끔 “내가 연기하는 공간 앞에 좌석을 더 마련해라. 내가 관객을 잘 피해서 연기하겠다”라고 한 연출에게 거듭 제안했지만 한사코 거부했다. “연극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가치가 값보다 우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연극 정신은 위대합니다.”

2017년 3월 대학로에서 공연한 극단 피악의 연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연극의 존재 가치, 정동환의 연극 정신을 우직하게 증명한 작품이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1880년에 발표한 이 고전은 러닝 타임이 각각 3시간 30분(15분 인터미션 포함)인 개별 공연 1부와 2부로 나뉘져 총 7시간 동안 펼쳐지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영혼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대한 해부도(解剖刀)였다. 이 작품에 대한 호평이 자칫 긴 물리적인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에 대한 감탄 또는 격려로 치부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1인 4역을 맡은 정동환이 1막 마지막 부분에서 대심문관을 연기하며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독백을 무려 20여 분간 쏟아냈던 순간, 무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그가 홀로 있는 듯이 관객들은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작품에는 이뿐만 아니라 연극의 경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수두룩했다. 커튼콜에서 그를 향한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영원한 현역’의 ‘늙지 않는 연기’는 그렇게 꿈틀댔다.

연극은 여전히 살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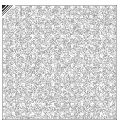
정동환의 연극에 대한 애정을 지피는 원동력의 땀감은 이 장르 자체를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여전히 활활 불타오르는 혼이다. 고입 재수 시절 남산 드라마센터에서 열린 연극 경연대회를 우연히 보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중동고 연극반 시절부터 연극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 돛을 올렸다. 1969년 연극 〈낮선 사나이〉(연출 유덕형)로 데뷔, 연극 무대는 물론 영화와 TV 드라마 등을 오가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중 한 명이 됐다. 그렇게 바쁘게 연기에만 매진하던 중 몸이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2007년 초반 TV 드라마 〈연개소문〉에 출연하면서 예술의전당 토월정통연극 시리즈의 하나



인 아서 밀러의 <시련>에 참여했는데 결국 공연장에서 쓰러진 것이다. 당시 어느덧 예순에 가까운 나이. 연극을 과연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이 들었지만 결국 그의 항해에서 최종 도착점은 언제나 무대였다. 바로 이듬해, 그해 연극계 최고 수확으로 통한 극단 실험극장의 연극 <고곤의 선물>에 출연해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극작가 피터 셰퍼가 1992년 발표한 작품으로 파멸로 치닫는 천재 극작가 '에드워드 담슨'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연극의 의미, 연극의 사회적 역할 등을 진지하게 고민한 수작이다. 에드워드를 연기한 정동환은 이 작품으로 '제19회 이해랑연극상'을 받기도 했다. 에드워드는 극 속에서 '연극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결국 이 작품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연극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몸부림이었다. 빠르게 돌변하는 세상에서 연극의 가치를 왜 지켜나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숙고하게 하는 작품으로 정동환의 신념이 인물과 작품으로 승화됐다.

정동환은 60대에 접어들 2010년대 들어 더 왕성하게 연극판에서 활

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연극판에서 노배우는 특정 캐릭터로 소비되게 마련인데 이런 클리셰조차 연기혼으로 무장한 정동환을 피해갔다. 그는 <오이디푸스>, <단테의 신곡>, <메피스토펠>, <태풍기담>, <햄릿> 등 굵직한 작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해나갔다. 2018년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한 2인 연극 <하이젠버그>에서는 서른세 살의 나이 차가 나는 남녀가 교감하고 서로에게 위안받는 내용을 30대 후반의 배우 방진희와 연기하기도 했다. 만으로 일흔 살을 맞이한 해이자 데뷔 50주년이던 지난해에는 연극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 <고도를 기다리며>에 출연하며 시들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상반기에 공연한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은 같은 해 하반기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페터 한트케의 희곡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거장 연출가 임영웅 예술감독이 이끄는 극단 산울림의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었다. 이런 의미 있는 작품에 출연한 것만으로도 기념할 만한 일인데 정동환은 작년 11월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9회 아름다운 예술인상'(SACF)에서



연극예술인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동환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게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면서 “매번 생물학적인 연령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로는 연극의 산소 공급소

사실 젊은 층에게 정동환은 ‘단명 전문 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SBS 드라마 〈열혈사제〉 등 인기 드라마에서 그는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역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캐릭터의 소비되지 않음은 드라마에서도 이어졌다. 〈호텔 델루나〉에서는 30년 동안 ‘장만월’(아이유)을 보필하며 호텔 델루나를 운영해온 노지배인을, 〈열혈사제〉에서는 방황하는 신부 ‘김해일’(김남길)을 따듯한 보살핌으로 사제의 길로 인도한 스승 ‘이영준’을 연기했다. 두 캐릭터 모두 드라마에서 이야기가 움직이는 데 주요 동력이 되는 인물들이었다. 1월 15일 첫 방송한 드라마 〈머니게임〉에서는 경제학계의 거목인 경제학자 ‘채병학’을 맡았는데 마찬가지로 2회에서 사망, 단명했다. 하지만 이 캐릭터의 죽음 역시 드라마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는 “제 캐릭터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연기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래도 저희 나이대의 배우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면 중요하죠”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관록을 TV 드라마가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1월 22일 첫 방송된 MBC 드라마 〈더 게임:0시를 향하여〉에서는 극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예언가 ‘백선생’을 연기한다.

그래도 역시 정동환의 고향은 무대. 지난해 말 서울문화재단이 올림푸스한국과 함께 진행한 사진 프로젝트 ‘영동한 사진관’의 결과전시 〈찍다: 리메이드 인 서울〉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정동환은 당시 대학로가 있는 동숭동에 얹힌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인터뷰를 진행한 대학로 서울문화재단(구. 동숭아트센터)에 대한 애뜻한 기억도 털어놓았다.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민간 시설로 지어졌는데도 상업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작품들을 주로 공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장민호 선생님이 출연하셨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인상 깊었죠. 긴 작품을 줄여서 선보였던 작품인데 아주 잘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사이 대학로의 풍경은 천변만화했다. 정동환도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변화에 대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것은 유보했다. 하지만 언젠가 우연히 참여한 정부와 대학로 인사들의 대화에서 그가 강조한 것처럼 대학로가 ‘연극의 산소 공급소’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한 건물만이라도, 특히 대학로에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물에서만이라도 음식점, 술집 없이 공연장만 들어섰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수익성이 좋은 가게에 건물 한편을 임대 주고 극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연극인, 관객들에게 극장은 일종의 성지(聖地)와 같은 곳이에요. 극장이 곧 절일 수도, 교회일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흔재될 수 있는 흐름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산소 공급소만큼은 같이 뭉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같은 극장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공간이라고 했다. “1960년대에 지어졌는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어요. 그런 극장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죠.”

어느덧 칠순이 넘었지만 정동환은 지금도 자주 산에 오른다. 그는 산에 오르는 것을 도전에 비유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같은 높은 산에 못 오를 수 있지만 그곳을 오르고자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자신은 그런 마음으로 연극에 임하고 싶다고 했다. “못 오를 것 같은데 왜 바보같이 도전하느냐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실용적인 것, 돈에 앞서는 가치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몸보신하면서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릴없이 세월이 흘러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칠순이 넘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제 원동력입니다. 그 가치를 함께 귀하다고 여겨주는 분들이 있는 한 같이 지켜나가고 싶어요.”

50년 동안 테마로 삼아온 연극의 심연까지 들어가 통달한 눈빛으로 아직도 형형한 빛을 내고 여전히 분명하게 발음할 수 있는 정동환의 에너지는 더 오래도록 항해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였다. 어디에선가 시작된 항해는 언젠가 끝나게 돼 있지만, 정동환의 항해지도만큼은 계속 그러나갈 공간이 남아 보였다. 한때 자신을 “연극에 대한 광신자라고 비웃어도 좋다”고 고백까지 했던 그는 이제 사제처럼 보였다. 여전히 성지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남아 있으니까.

글 이재훈_뉴시스 기자 사진 손홍주 사진 제공 극단 피막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글은 한겨레신문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 게재됩니다.

눈 아닌 감정이 그린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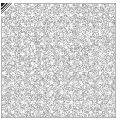
김효찬
그림 작가

김효찬은 일상의 한순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일상드로잉, 인물드로잉, 크로키 등을 강의하고 그림책 작업을 한다. 일러스트 책으로는 <유혹의 학교>, <불교를 철학하다>, <초딩도 안다 당신도 알 수 있다>, <영화, 뉴욕을 찍다> 등이 있다. 그림책으로 <나는 개구리다>, <괜찮아, 방법이 있어>, 지은 책으로 <펜과 종이만으로 일상드로잉>, <펜과 종이만으로 인물드로잉>, <펜과 종이만으로 어반드로잉>, <하나로 연결된 삶> 등이 있다.

“굳이 남들과 똑같이 그려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의 한순간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작가 김효찬은 평상시에도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며 순간을 포착한다. 그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스토리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을 그릴 때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풍부하게 보이는데, 그만의 왜곡된 곡선이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작가만의 느낌을 담아 역사를 기록한 <오래된 서울을 그리다>가 지난 11월 10일 발간됐다. 이 책은 조선시대 이후 역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써온 정명섭 소설가와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들은 지난해 봄부터 늦가을까지 종묘, 서순라길, 덕수궁, 정동길, 수성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서촌과 벽수산장 등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기록했는데, 여기엔 3~4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8개의 탐방 코스를 소개했다.

“난독증이 있어 글을 집중해서 읽지 못한다”고 고백한 작가는 약점이 오히려 자신만의 그림체를 완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느 화가와 다르게 정규 과정을 밟지 않고 독학으로 그림을 마스터했으며, 왜곡되어 보이는 그의 그림은 어떤 것보다 대상의 특징을 잘 뽑아낸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미술 학원은 근처에도 못 갔어요. 건설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퇴근할 때 가져온 청사진의 뒷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대학 전공도 미술 쪽이 아니라며 오히려 “지도교수의 그림체가 주입식으로 각인되지 않았던 시간이 나에겐 천운이었다”고 말했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그만의 그림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장인’보다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그리는 ‘천재 화가’로 기억되고 싶어요.”



타지의 '소수자 삶' 조명



이오진 연출가

이오진(본명 이정현)은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거쳐 뉴욕시립대 대학원에서 연극 비평을 공부했다. 〈가족오락관〉(2009)의 극작가로 데뷔하여 〈바람직한 청소년〉(2014), 〈오십팔키로〉(2016) 등을 썼고 〈페미니즘 청소년극〉(2017), 〈이번 생에 페미니스트는 글렀어〉(2018) 등을 연출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또 다른 누군가로 착각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안 2세의 쌍둥이 자매가 저지른 살인을 다룬 블랙코미디 〈피어리스: 더 하이스쿨 맥베스〉(1월 9~19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를 연출한 이오진은 작품의 원작자가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해 작품을 소개했다.

이 작품은 미국 대학원에서 연극 비평을 공부하던 시절에 우연히 접한 한인 1.5세 극작가 박지혜의 〈피어리스〉를 토대로 만든 연극이다.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은 쌍둥이 자매가 소수인종 특별전형에 같은 반의 백인 남학생이 합격하자, 그를 죽이고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블랙코미디를 그렸다. 이 연출가는 “작품이 웃기면 웃길수록,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의 폭력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작품은 전장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인을 선택한 그들에게 “과연 무엇 때문에 비극이 초래됐을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제목이 암시하듯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파국의 길을 선택하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모티브로 따왔다. 이 연출가는 자매가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이 과연 이것뿐이었는지 고민했지만, 자신도 유학생으로서 어떤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든지 미국 사회는 저를 ‘20대 동양인 여성’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수줍고 약한 존재처럼요.” 이는 최근 솔직함 때문에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해 자살한 여자 연예인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타지에서 당했던 소수자의 삶과 그들이 겪었던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될지 바라느나는 질문에 이 연출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청소년·소수자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 고민했어요.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공감대라도 형성되면 좋겠어요.”

‘광주’서 찾은 우리 발레



문병남
안무가

문병남은 조선대 무용학과를 졸업했다.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1984~1992)로 시작해 국립발레단 지도위원(1993), 국립발레단 상임안무가(1999~2002),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2002~2005), 국립발레단 부예술감독을 지냈으며, 현재는 엠(M)발레단 대표이자 예술감독이다. 문화부 장관상(1986), 체육부 장관상(1988) 등을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안중근>, <처용>, <남북녀>, <어느 장군의 죽음> 등이 있다.

“자유와 평화를 갈망했던 인간의 감성을 느껴보세요.”

40년 전, 5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담은 <오월바람>(1월 11~12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의 문병남 안무가는 이렇게 말했다. 80학번인 그는 광주에서 직접 겪은 악몽을 토대로 두 남녀 무용 학우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연습실로 가던 도중 금남로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3박 4일간 부대에 감금됐던 기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작품은 계엄군에게 맞선 시민군의 항거 속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연인에 대한 이야기다. 최루탄이 터지는 현장과 이들을 바라보는 여주인공 헤인 엄마의 시선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절규를 극적으로 담았다. 여기에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 27명 중 연기를 전공한 배우까지 등장시켰다.

이런 시도를 두고 문 안무가는 고전발레와 다른 드라마발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작품을 구상한 초창기엔 제목을 광복절인 8·15와 라임을 이루어 ‘518815’로 정했으나 “외부에서 불어오는 억압의 에너지를 뜻하는 바람(wind)과 단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광주 시민의 바람(wish)을 다의적으로 표현해 <오월바람>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뜻을 같이하는 국립발레단의 전·현 무용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그룹 ‘엠(M)발레단’을 이끄는 문 안무가는 40주년을 맞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우리 고유의 역사가 깃든 발레를 제작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을 돌며 발레를 배웠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발레는 따로 있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정작 우리 발레는 모르면서 엄청난 개런티를 주고 외국의 것만 흥내내는 데 급급하죠. 해외를 돌아다녔지만 정답은 바로 한국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역사와 정신이 깃든 발레를 보여주고 싶어요.”



종묘제례악 재해석하기



이아람 대금 연주자

이아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를 졸업했으며 단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창작하는 대금 연주자이자 프로듀서로,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꽃'을 거쳐 현재 '음악그룹 나무' 대표와 '블랙스트링'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제18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2002),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연주상(2017), 제36회 KBS 국악대상 연주(관악)상(2017) 등을 수상했다.

“당연하게 전해 내려온 음악이 과연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일까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한국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종묘제례악을 재해석한 <팔음>(1월 17~18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이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는 15세기 때 세종대왕이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온 음과 동작으로 종묘제례를 지낸 고려의 예종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아람, 황민왕, 최인환 등 전통음악과 재즈로 각자의 어법에 익숙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음악그룹 나무'가 같은 질문을 세종대왕에게 던졌다. 중국에서 건너온 아악(고려·조선의 궁중의식에서 연주된 전통음악)으로 왕가의 제례를 지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맞는 음악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것처럼 이들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 가치가 후세에까지 계승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 공연을 만들었다. “개인이 500년 넘게 내려온 민족문화를 짧은 시간에 해체, 조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통용되는 보편적 정서를 담아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이아람 예술감독은 이를 위해 종묘제례악을 원자 단위까지 쪼갰다. 쇠·돌·줄·대나무·바가지·흙·가죽·나무 등 악기를 제작할 때 쓰이는 여덟 가지 재료를 뜻하는 8음이 관념적인 개념이라면, 종묘제례는 공연을 채우는 형식을 뜻한다. 이처럼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만드는 이 예술감독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 생각의 틀을 허물어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팀이 창단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실험을 이끄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전통 예술을 하는 팀이 왜 굳이 종묘제례악을 비틀고 해체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승되는 음악이 다음 세대에도 멋진 모습으로 전승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동시대 연희의 답을 찾는 여정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 간담회

일시 2020년 1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3층 회의실

사회

장수홍 국악방송PD

대담자(소속, 참여 사업)

김정희 비커밍콜렉티브 대표, 전통연희 증강랩(LAB) 설계

홍보라 FACTORY 대표, 전통연희 증강랩(LAB) 조력자

이지희 연희그룹 연화 대표, 전통연희 증강랩(LAB) 참여 예술가

안대천 연희집단 The 광대 대표, 동시대 연희 창작작품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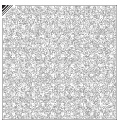
신규 작품 제작

김기영 연희집단 갯 대표, 동시대 연희 창작작품 지원사업:

작품개발(리서치) 과정

서울문화재단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동시대성을 담아내는 창작 연희작품을 개발해 확산하고, 연희예술을 서울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첫 해인 2019년에는 전통연희 예술가와 단체에게 필요한 단계별 직·간접 지원사업을 구분해 진행하고, 연희 창작활동의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현황 조사와 기본 연구를 시행했다. 2019년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이 모여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동시대 연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홍 우선 각자 참여한 사업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저는 창작작품 지원사업의 리서치 과정에 참여해 한 해 동안 팀원들과 신작을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전시 형태로 했고 제목은 〈전통의 조건들: 돌을 던지는 방법을 위한 리서치〉였어요. 4명의 리서치가 참여해 지금 무엇을 전통이라 부르는지, 전통이 작동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생기는 불편함, 목적의식, 사명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전통의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부터 공부해보니 시대마다 전통이라 여기는 것이 달랐어요. 전시는 동시대에 전통을 구성하는 조건을 찾아 5부로 구성했어요. 1부는 ‘유령-전통’으로 근대가 시작되면서 전통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실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라는 점을 다루었어요. 개념이 형성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필요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2부는 ‘장르-전통’으로 전통이 제도교육 안으로 들어오면서 관극화, 전문화되면서 하나의 장르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3부는 ‘오부리-전통’으로 ‘오부리’란 각종 행사공연을 뜻하는 공연계 은어인데요, 행정 시스템의 ‘세금 타당성’과 ‘성과주의’와 맞물려 공연예술에 흥겨운 이미지와 일관적인 역할이 들러붙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4부는 ‘컨템포러리-전통’으로 오늘날 컨템포러리 전통 공연의 탈맥락화, 개인성의 강조, 물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재맥락화의 과정 없는 성급한 탈맥락이 어떻게 다시 ‘유령-전통’으로 회귀되는지도 보았습니다. 5부는 ‘재연-전통’으로 가부장제 아래서 전통을 유지하는 역할은 결국 여성에게 부여되고 공연에서도 여성에게 요구되는 이미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각 부의 조건마다 참여하고 독립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이 조건들이 얹혀서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궁금하고 답답했던 것을 찾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업이 있어서 끌고 나가면서 사고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홍 리서치 지원은 연희 분야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가 심화되기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준 것 같습니다.

김기영 창작을 하려면 당연히 리서치를 해야 하는데 지원사업에서는 그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리서치는 실질적인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

고 그 시간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수홍 이전의 지원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기영 처음에는 공연 리서치이니 쇼케이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리서치에 좀 더 집중해서 전시로 하고, 공연을 너무 빨리 뽑아내려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었어요. 전시라는 다른 결과물의 형태를 경험한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작품과 과정을 생략한 덕분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작업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홍보라 지금의 고민이 많은 젊은 연희집단이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올해 더 확장해서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공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대천 기존의 시행착오들을 남겨놓고 팀원들끼리 공유된 상황을 체크해놓으면 그 이후에 누가 하더라도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홍 ‘연희집단 The 광대’는 2019년 사업 중 가장 비중이 커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작업할 때 더 집중했던 부분과 기존의 창작지원과 다르게 도움이 되었던 점을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천 이 사업을 통해 〈탄소리 판〉이라는 공연을 했는데요. 이 시대에 연희하는 광대들은 ‘거지같다’라는 말을 해요. 작가가 거지와 광대의 공통점은 ‘내일이 없고, 지갑이 필요 없고, 염치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지 이야기로 접근해서 광대를 거지의 시선에서 보았습니다. 그간 창작공연을 해왔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는 생각에서 접근했습니다.

장수홍 이 사업에 보완이 필요한 점을 얘기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월 동안 운영하고 완성된 작품을 올리기까지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대천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금액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준, 규모, 결과물을 생각하는데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지원에 걸맞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 형식과 다른 것을 해보고 싶지만 구색을 맞추다 보면 제약이 생깁니다. 리서치, 쇼케이스도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열려 있지만 저변에 깔려 있는 부분에 발목을 잡히면서 가는 상황입니다.

기본 좋은 충격을 준 증강랩

장수홍 사실 가장 관심이 가고 기대가 큰 사업은 증강랩이었는데요. 증강랩을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지희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주고 쇼케이스를 통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장수홍 전시에서 인터뷰를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지만 그것이 깨지면서 좋았던 지점이 있었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참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점과 이 사업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지희 저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실력 향상을 기대했어요. 전통연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사실 참여자 중에 전통연희 분야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분들과 전통연희의 동시대성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면서 어릴 때부터 전통 분야에만 있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장수홍 동료와 후배들에게 전통연희의 실력 증진이 필요한지, 문화 전반의 이야기를 통한 확장이 더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맞았습니다. 연희과에서 기본적인 것과 전문적인 것은 배우고 사회로 나오는데요. 증강랩을 하면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전통 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겪고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장수홍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기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계에서는 다양한 장르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증강랩을 기획하고 참여한 계기와 예술가들을 통해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 지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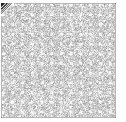
김정이 증강랩은 정책 설계와 관련된 리서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동시에 전통연희와 관련해 전국 현황도 조사했고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필요한 질문을 구성했고,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현황 조사를 진행한 까닭은 전통연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혼란이 현장에 존재하고, 전통연희가 한예종이 생기면서 기획된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전통연희를 지원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전통연희의 개념을 정리하고, 정



장수홍, 김정이(왼쪽부터).

리된 개념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제 전통연희를 파악해야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강랩인데요. 기존의 지원금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는 지원 구조에서 단체들은 힘들다고 하고, 창작은 알아서 유명해진 스타급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았어요.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의 지원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행정 혁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 증강랩이었습니다. 증강랩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교육이나 인력 양성 사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해체하기 위해 참여한 모든 분들을 연구원으로 명명했고, 증강랩을 진행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기록하고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두 달간 진행하고 마지막 한 달은 매듭 프로젝트 준비로 전환했는데요. 초반에는 잘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전통연희 참여자들은 타 분야와의 협업 경험이 부족하고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상황이라 평평한 협업의 상황을 낯설어했어요. 방어적이기도 했고요. 반응이 올라오지 않다가 막판에 터지기 시작하는 순간, 참 경이로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보여준 일종의 장기자랑은 다소 기계적이고 준비된 인터랙션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매듭 프로젝트에서는 랩 연구원들이 인터랙션을 즐기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협업이야말로 이



홍보라, 이지희, 안대천, 김기영(왼쪽부터).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통연희 신에서는 협업의 방법을 모르거나 두려워했어요. 모든 것을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열린 에너지를 받지 못했는데, 창작지원과 더불어 고립되지 않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홍보라 저는 처음에 전통연희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기획자이고 시각예술을 베이스로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낯선 곳에 두는 연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전에 참여자들의 정보나 영상을 봐도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처음 감을 잡고는 한 곳을 바라보는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이 벌어지고 사방이 열려 있고 누구든 개입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유연성과 즉흥성을 발휘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이들도 낯선 곳에 데려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동안은 왜 배우는지 모르고 했잖아요. 단단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전통연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러닝', '언러닝', '리러닝'이 되게 했습니다.

기획 얘기를 하면서 '어쩌다 이들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순간이 있었어요. 참여자들은 기획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행위가 기획이다. 기획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기획을 안 하는 건 이야기를 안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도 소통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순간 '아차' 했어요. 저에게 예술가로서 예술을 한다

는 것은 창작이었어요. 기존의 질서를 숙련된 몸의 기술로 받아들이 수행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통의 기본 룰을 몰랐던 거죠. '창작과 기획을 안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거기까지 깨닫는 데 한 달 반이 걸렸어요. 이들은 창작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 있는 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것도 창작이거든요. 그 부분이 깨지고 나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 오해한 부분을 깨닫은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저는 원래 관심 있었던 협업에 집중했는데요. 협업, 창작, 개인 브랜딩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에 개인 작업을 하면서 개개인의 브랜딩이 잘되어 있고, 협업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유연한 유형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해낸 것도 놀라웠고, 임계점에 달해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했어요. 굉장히 유효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러닝'에서 '리러닝'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동시대성에 대한 고민

장수홍 저는 이 시대가 창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통연희를 하는 분들이 브랜딩하고 가치를 만드는 것보다 창작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전통으로서 동시대성을 가져가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에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연희집단 The 광대 제공)

참여한 분들은 관객을 만나는 방법과 동시대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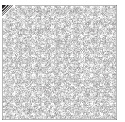
안대천 저에게 연희의 범주는 마당에서 했을 때 좋은 공연, 하고 싶은 공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객과 벽이 없고 최대한 가까워야 합니다. 공연장에서 객석과 무대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만날 때마다 반응이 다른 관객을 어떻게 소화할지, 있는 그대로 맞닥뜨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저희는 연령대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지향하기 때문에 관객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김정이 조사를 해보니 동시대 창작이 무엇인지 질문은 던지지만 방법론이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내재된 창작이 없으니 연극의 기법을 넣어서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연출가, 작가, 대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계속 연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즉흥성, 마당, 열리고 닫힘, 매듭과 풀어짐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버리고 연극에서 찾으려 하는지 안타까웠어요. 창작의 결과물은 관객의 반응을 살피면서 인터랙티브를 증폭시키는 유형과 내 안의 것을 퍼포먼스로 연결하는 경향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후자는 너무 사변적으로 가서 무겁게 풀리는 단점이 있고요, 관객 중심 유형은 연극적으로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동시대는 내 안에 천착된 깊이 있는 무언가, 전통연희에서 ‘흥’, ‘한’이라 불리는 것을 전면에 어떻게 내놓는지의 문제로 보이고요. 매듭 프로젝트에는 개별화된 자기 이야기가 있었고 조력의 방식을 적

절히 활용했어요. 열려 있고, 가볍고, 재미있고, 성찰도 있었습니
다. 8개 프로젝트 모두 참여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개인의 강한 것들이 관객들과 만나는 접점을 마당 안에서 만들어내는 장면을 봤거든요. 전통연희가 가진 매력 같아요.

홍보라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기획의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relevancy’라고 했어요. 자기와 관련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재미있어지거든요. 전통연희를 하는 분들은 재주가 참 많고 매력적인데요. 계속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해요. 시각예술은 언어를 확장해서 외연이 크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이를 차용해서 ‘relevancy’를 만들어서 재능을 키우자고 했어요. 이전의 작업들은 모든 것이 남을 향해 있고, 재능에 비해 언어가 거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개인의 관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나온 주제가 ‘동물’이었어요. 동물권, 동물에 대한 사랑을 공연으로 하면 여러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생기거든요. 개인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주제의 연결고리를 만들면 현대성을 갖게 돼요. 기존의 질서 안에서 타인과 연결하는 부분에 연구를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장수홍 전통예술은 오랜 기간 대중화, 세계화, 현대화, 이제는 동시대성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통에 대한 가치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어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동시대적인 연희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변화된 지점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영 저는 전통에 따라붙는 현대화, 세계화, 대중화, 동시대성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전통은 현대화해야 하고, 동시대적이어야 한다는 사명이 싫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 안에서 생기는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작업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어려웠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요. 전통판에서 전통과 창작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요. 지금 전통이라 믿고 있는 것도 현대에서 전통이라 부르고 싶은 방식으로 편집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현대화된 전통이에요. 큰 오해가 있는 거죠. 전통을 원형적인 것으로 신화처럼 어딘가에 두고 계속 현대화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어요. 리서치를 시작한 계기도 그런 문제의식이었고요. 이번 리서치 이후로 제가 어떤 조건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자각이 크게 달라졌어요. 동시대성에 대한 고민도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동시대의 조건을 파악하는 일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 희 저는 증강현실의 영향을 받아 예술적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뒤집어졌어요. 처음 면접에서도 동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시대를 잘 반영하고 시대에 맞게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DDP에서 공연한 〈투명인간〉도 그냥 투명인간이 되면 어떻게 상상하고 얘기해보면서 나왔어요. 기존의 것을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파헤쳐보는 식으로 했어요. 사실 공연 형식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었어요.

안 대 천 반성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시대가 원하는 것에 너무 맞추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항상 했어요. 전통이라는 경계를 벗어나면 알아서 돌아오려는 귀소본능이 있어요. 그 선을 따라 넘어보면서 줄타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성도와 기준치에 대한 생각, 싸고 가벼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를 가지고 공연을 준비해요.

이 지 희 저는 너무 아름답게만 풀어내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연희의 콘텐츠를 가져와 포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을 깨기 위해 노력했어요.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원사업

장 수 홍 2019년에 참여한 사업이 분명 도움이 되었겠지만, 전통연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지원제도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대 천 동시대를 살아가는 윗세대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로운 생각은 나이대가 상관없더라고요. 기량이 좋은 윗세대와 중간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함께 만 들어가는 장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안에 갇혀서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온 건 아닌지 돌아보고, 위아래를 살펴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정 이 윗세대, 이런 이야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예술 신 같아요. 특이점 중 하나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지원, 동시대 창작지원 각각은 문화재청, 전통문화예술진흥재

단의 역할과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시대 창작 영역에서는 전통연희가 보존에 국한된 '전통'의 안전망을 떼고 다른 장르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희는 '전통'을 떼도 다른 예술 신보다 '힙'하다고 생각해요. 해외공연을 가장 많이 하는 장르이고요. 해외에서 전통연희가 그냥 신기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고 좋아서 초청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어요. 리서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홍 보 라 예술은 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매력이란 'relevancy'예요. 예술가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매력 있다면 어떤 종류든 살아남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이라서가 아니라, 매력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 매력은 'relevancy'에서 발생해요. 어디에서 매력을 느끼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장 수 홍 같은 고민을 하는 중간 세대들이 원로들과 공연을 하고 있고요. 창작이 아닌 전통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젊은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공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김 기 영 연희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작업이라 도시에서는 연습실을 찾기 힘들어요. 무용 연습실은 방음이 안 되고, 방음이 되는 곳은 좁아요. 개인 연습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큰 공간을 잡기 어렵고요. 공간을 만든다면 소음 문제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천장도 높아야 합니다.

홍 보 라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니 전통연희에는 굉장한 'formality'가 있어요.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요. 이 분야에서는 통하는 방식이고, 보여지는 것에서 노력의 결과가 전달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단단한 형식이 있으면서 실제 내용은 열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수 홍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은 지원금만 주고 끝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지원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사업을 통해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잘 선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호가 입장에서 예술가 스스로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확장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성장하는 단체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정리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피규어라는 멋진 신세계

피규어 원형사(Figure Sculptor) 전연선

피규어를 이제 단순히 장난감으로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다. 피규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피규어가 예술의 경지로까지 나아가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피규어를 제작하는 피규어 원형사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조소학과를 졸업한 뒤 피규어 원형사로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연선 작가의 이야기를 전한다.

작은 부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피규어 작업

나는 작품 보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교 졸업 후 미술관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좋은 작품을 접하면 접할수록 내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커져갔고 7년 전 피규어 회사에 입사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규어의 최초 원형(原形, prototype)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단순한 작은 고정형 트레이딩 피규어부터 완전 가동형 피규어까지 모든 제

품들은 사람이 직접 스컬피나 목재 등의 다양한 조형재를 깎고 붙여가면서 만들어낸 원형에서 시작된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피규어 원형사라고 한다.

처음에는 베이스, 발, 손, 액세서리, 보디 작업과 복제 작업을 했다. 조소학과를 졸업했지만 피규어를 잘 알지는 못했기에 실력이 부족했고, 작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이렇게 피규어



1, 2 <토르: 라그나로크> 헐크와 로키 피규어.
3 <플래시> 피규어.

를 배웠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피규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과 더불어, 작은 부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인물을 6분의 1로 축소하는 작업이다 보니 생각할 것이 많았고 섬세함을 필요로 했다. 그만큼 더 멋진 영화 속 피규어 재현이 가능했다.

몇 년이 흘러 피규어 헤드를 만들 기회가 주어졌다. 얼굴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작업하면서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더 표현해야 하는 부분들로 인해 매번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 최고의 선택을 위해 인체와 관련된 자료와 영상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표정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연구했다. 배우 사진에서 모티브를 찾아 조각으로 담아내면서 희열을 느꼈다. 그 후 여러 헤드 작업들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작업 시간을 조금씩 줄여갔고 덕분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매번 깨닫는 것은 피규어는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되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한 명의 개인이 만든 듯하지만 피규어는 완성되기까지 많은 공정을 거친다. 헤드부터 디테일 파츠까지, 예술가들이 연구하고 고심해서 선택한 부분들이 하나의 작품에 녹아 있다. 그래서 더욱 값져 보인다.

연구와 노력이 깃든 작품의 탄생

그동안 참여한 헤드 작업들로는 배트맨 야캄나이트 버전 얼굴 부분, 고스트 라이더, <토르: 라그나로크> 로키, 헐크, 발키리, <인피니티 워> 버키,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마스크 얼굴, <플래시>, <헬보이>, <어벤저스: 엔드게임> 캡틴아메리카, 토르 등이 있다. 조금 독특한 헤어스타일이나 모양을 한 피규어를 작업할 때는 종종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라그나로크의 로키 헤어는 블랙이었지만 긴 파마 형태의 머리 모양이라 신경을 많이 썼고, 깔끔하고 멋진 모습을 위해 손으로 많이 다듬고 붙이고 깎았다. 헤어스타일이 복잡하면 제작의 어려움이 많지만 제품이 나오면 어려운 시름을 통과한 것처럼 보람을 느낀다. 어려운 작업이 끝나면 조금 실력은 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영화 속 배우의 얼굴, 표정, 피부, 헤어스타일을 다 담아내야 하기에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곤 한다.

나는 멋진 피규어를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낀다. 작품들을 보고 구성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 소비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전 세계 많은 작가들이 피규어를 만들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들을 접할 때마다 감동을 느끼고 그 속에서 발전하고픈 욕구와 목표가 생긴다. 조금 더 사람 같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작업에 매진하려 한다. 많은 작가들 속에서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요즘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감사하다. 내 밥벌이도 밥벌이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수집은 물론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피규어를 제작하고 싶다면 피규어를 많이 사보고 분해해볼 것을 추천한다. 이론으로 배울 수 없는 작가의 고민이 피규어마다 녹아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 제공 전연선_피규어 원형사

도심 한복판
서울광장은 겨울왕국
얼음판 위 사람들은
겨울 추억을 쌓아
봄을 기다린다.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004년 처음 설치되어
겨울 서울의 대표 명물이 되었다. 약 70일간 운영된다.
글 · 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누구를 위한 공공미술인가?

건축물 미술작품 둘러싼 지자체 - 작가 간 갈등

지난해 12월 초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대로변에 있던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은 “저승사자가 연상돼 무섭다”는 민원이 급증한 바람에 철거됐다. 원래 2015년 세종시 국세청 앞에 설치됐다가 소방청 앞으로 쫓겨난 작품이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빌딩 조형물은 당초 예술가와 시민들을 위해 세워지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면 건축비의 1% 이하 범위에서 미술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주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는 법적 장치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0.1~0.7%, 근린생활시설 등은 0.5~0.7%, 공공건축물은 1%에 달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부결률 높아진 이유는?

좋은 취지에도 비판이 자주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해 부결률이 높아졌고 이번에는 작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품 부결로 많은 작가들이 창작활동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의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부결률은 실제로 급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이전에 평균 35%였던 미술품 심의 부결률은 지난해 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전에는 부결률이 37.5%였으나 9월에는 88%, 10월에는 100%로 심의 대상 33작품 중 한 작품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부정과 작가들의 자기 복제를 막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자 부결률이 높아졌다”고 밝혔고, 경기도 관계자는 “작품성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가들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됐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조각가협회는 서울시 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의위원 특정 취향의 편중 현상 심화, 고정 심의제(20명 3년까지 연임 가능)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 표출, 심의 전문성 결여(조각 전문위원 4명) 등을 들었다. 특히 서울대와 홍익대 출신 심의위원이 9명으로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제대로 작품을 평가할 수 없다”며 “서울대와 홍익대를 졸업한 작가들의 심의 승인율은 54%로, 그 외 대학 졸업 작가들의 승인율 36%보다 높다. 특히 심의위원과 친분이 있는 특정 작가 승인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5년 안에 5번 이상 서울시에 작품을 설치한 작가는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기존 윤번제의 전문성, 책임성,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7년 11월부터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기존 80명 윤번제(간마다 15명 심의)에서 20명 고정제로 바꿨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조형물 〈흥겨운 우리가락〉.

85명 윤번제에서 55명 윤번제로 변경했다.

두 협회 측은 부결률이 높아진 근본 원인으로 ‘선택적 기금제’를 꼽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작품이 선정되지 않아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다. 두 협회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부결률을 높여 기금으로 받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2011년부터 걷은 기금이 300억 원이며, 공공미술 사업에 쓴 액수는 30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청 관계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현행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지역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 측은 “경기도가 이석현 의원에게 부탁해 만든 법이라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를 해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화와 공개 토론회 통해 문제점 개선 중

두 협회는 서울시에 현재와 같은 심의위원 20명 고정제를 예전처럼 윤번제(80~100명, 심의는 15~20명)로 해 다양한 견해 수렴, 심의위원 구성을 ‘건축 심의’와 같이 전공자 80% 이상(현재는 10~20%) 보장, 심의위원의 학력 및 지역 형평성 고려해 인력 구성, 심의위원 공개와 작가의 작품 설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공개를 요구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작가들과 대화를 통해 심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한국조각가협회와 면담을 가졌으며 이날 심의 가결률은 70%까지 올라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올해 2월에 작가들과 유튜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지난 1월 가결률은 40%로 올라갔다. 다만 경기도청 관계자는 “개인 신상 정보 노출 문제로 인해 심의위원 공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 전지현_매일경제 기자

작가들, 이상한 문학상에 반기를 들다

이상문학상 수상 거부 논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문학계는 이상문학상 논란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올해 제44회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작가가 수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서의 '저작권 양도 조항'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수상작들의 저작권을 이 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사에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에 작가들이 반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학사상사 측은 1월 6일 예정됐던 수상작 발표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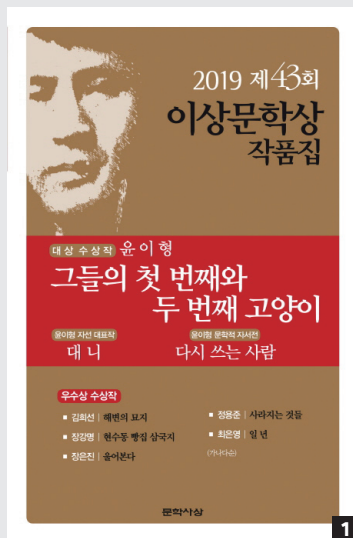
이상문학상은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의 작가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소설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7년 문학사상사가 제정했다.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문학상으로 꼽힌다.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시상하며 수상작과 후보작을 매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통해 발표한다. 작품집은 매년 2만 부 이상 판매될 정도로 파급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40여 년 지켜온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상문학상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봤다.

저작권 양도 요구에 수상 거부한 작가들

시작은 김금희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다. 김 작가는 지난 1월 4일 자신의 SNS에 “어제 모 상의 수상 후보작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일차적으로는 기쁜 마음이었다”라며 “그런데 오후에 계약서를 전달받고 참담해졌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거기에는 내 단편의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심지어 내 작품의 표제작으로도 쓸 수 없고 다른 단행본에 수록될 수 없다고 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표제작으로 쓰는 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글썄, 내가 왜 그런 양해를 구하고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수상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영 작가 역시 “황순원문학상, 젊은작가상 우수작에 올랐지만 이런 조건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며 “나를 포함한 작가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출판사와 관계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우수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기호 작가는 1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 나에게도 연락이 왔었다”라며 “(이상문학상) 우수상이라는데 3년 동안 저작권 양도 이야기를 하길래 가볍게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작가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문학평론가는 “이상문학상에 아직 남아 있는 ‘전통과 권위’가 있나 싶지만 김금희 작가가 거의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라며 “문학사상사는 이상문학상의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문학사상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다 저항을 받은 것”이라며 “김금희 작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1 <이상문학상 작품집>. (출처_문학사상사)
- 2 김금희 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출처_김금희 작가 트위터 갈무리)

논란 계기로 '노예계약' 사라져야

이번 일은 비단 이상문학상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현대문학상, 김유정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많은 문학상들이 수상 작품을 수록한 '수상 작품집'을 출간하고 있다.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된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동인문학상의 경우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각 문예지나 매체에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기성 작가와 평론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문학상 저작권 문제가 개선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수년 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던 한 작가는 “내가 수상을 하던 때에도 비슷한 계약서 조항이 있긴 했지만, 상을 받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에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라며 “지금은 세대가 바뀌고 '갑질'에 민감한 시대이다 보니 젊은 작가들이 용이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학평론가인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이상문학상의 전통과 권위에 힘입어 '불건적인' 계약조건을 작가들에게 강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메이저 출판사의 경우에도 작가들에게 가하는 유무형의 불이익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작가 의식을 고취하고 문학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문학상의 취지가 이번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학사상사 측은 “작가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가 된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상을 빌미로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작가와 출판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비치기보다, 수상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문학상'을 모두가 바라고 있다.

글 이윤정_이데일리 기자

1980년 5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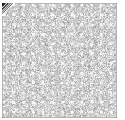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1월 21일, 창작초연 중심의 공공 제작극장으로서 쌓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2020년 시즌 프로그램 라인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화두를 던져온 남산예술센터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 기억해야 하는 것,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올해의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은 1980년 5월 광주를 기억하는 작품과 그 이후의 세대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지난해의 작품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주목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면, 올해의 작품들은 가해와 피해의 역사 속에 놓인 인간을 고찰하며, 시대가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공유할지를 고민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총 5편이다.

5월, 광주를 기억하는 한국과 폴란드 두 개의 시선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두 작품을 연이어 선보인다. 우선 지난해 시즌 프로그램이었던 〈휴먼 푸가〉(원작 한강/연출 배요섭)를 5월 13~24일에, 〈더 보이 이즈 커밍〉(The boy is coming)(원작 한강/연출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을 5월 29~31일에 무대에 올린다. 두 작품은 모두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토대로 제작됐다.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동시에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작품들이다. 지난해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첫선을 보인 〈휴먼 푸가〉는 파격적인 무대연출과 공연 전개로 화제를 모았으며,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주관한 '2019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된 바 있다.

〈더 보이 이즈 커밍〉은 폴란드 연출가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의 작품으로 2019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초연했다. 남산예술센터는 그동안 '베를린 사우뮈네 〈햄릿〉'(2010), 〈고골의 꿈〉(2010), 〈델루즈(DELUGE): 물의 기억〉(2015) 등 몇 편의 해외 작품들을 초청한 바 있으나, '동시대 창작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이라는 목표 아래 대부분의 작품들을 국내 초연으로 채웠다. 〈더 보이 이즈 커밍〉은 국내 창작초연 작품은 아니지만, 폴란드의 시선으로 5월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즌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이 올해 5월 〈휴먼 푸가〉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는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만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



국에서 시작해 폴란드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광주의 아픔이 1980년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0대 젊은 창작자의 발언,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과거

이번 시즌 프로그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작품이 30대 젊은 창작자들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작품들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만주를 그린 〈왕서개 이야기〉(작 김도영/연출 이준우),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아픔을 이야기한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작/연출 김지나),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본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공동 창작/연출 임성현)가 있다. 실제 사건을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지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그들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역사적 아픔을 풀어나가고, 자신들의 시선을 보여준다.

2020년 시즌 프로그램의 막을 올리는 〈왕서개 이야기〉(4월 15~26일)는 남산예술센터 상시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로 시작해 제작 전 콘텐츠를 사전에 공유하는 작가 발굴 프로젝트 '서치라이트'(Searchwright)를 거쳐 시즌 프로그램으로 안착한 작품이다. 이는 남산예술센터의 단계별 제작 시스템을 모두 거친 것이다. '왕서개'라는 인물의 복수를 통해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세계사의 아픔을 이야기함으로써 가해의 역사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6월 24일~7월 5일)은 198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낳은 여러 사건의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기억을 무대화했다. 파편화된 기억이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아픔은 특별한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시즌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하는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9월 2~13일)는 형식에 잠재되어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예배의 제의성과 연극성을 부활시키기 위해 제사장의 위치에 기독교가 배제해온 '퀴어'(Queer,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류 기독교가 독점해온 사랑, 공동체, 믿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퀴어에 대한 불안과 혐오,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와 분열을 한곳에 담아내 극장과 연극의 공공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리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2020년 공연 일정

구분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협력 극단
시즌 프로그램	4. 15~4. 26	왕서개 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	극단 배다
	5. 13~5. 24	휴먼 푸가	원작 한강, 연출 배요섭	공연창작집단 뮈다
	5. 29~5. 31	The boy is coming (Nadchodzi chłopiec)	원작 한강, 연출 마르친 비에슈호프스키	폴란드 스타리 국립극장
	6. 24~7. 5	아카시아와, 아카시아를 삼키는 것	작/연출 김지나	이언시 스튜디오
	9. 2~9. 13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공동 창작, 연출 임성현	콩깍지 프로젝트
공모 프로그램	3. 3~3. 13	서치라이트(Searchwright)		*공모 통해 선정
공동 주최	2. 21~2. 23	일본희곡 낭독공연		공동 주최
	3. 24~3. 29	중국희곡 낭독공연		

무대예술, 격을 파하다

공연장 식음료 반입 허용

과도한 ‘엄숙주의’ 지적을 받아온 한국 공연계에 ‘문턱 낮추기’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음료와 음식을 취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영화관과 달리, ‘생수 외에 공연장 반입 금지’ 규정을 강력하게 지켜온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 ‘무대예술’ 전문 공연장들이 음료와 간단한 음식, 심지어 주류 반입 및 취식까지 허용하는 실험적 공연을 속속 내놓고 있다.

#1 연극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무대 위로 관객이 몰려들었다. 관객은 배우 바로 옆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고, 다른 관객은 한 손에는 커피를 또 다른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자유롭게 관람한다. 무대 뒤편에는 아예 간이매점이 차려져 커피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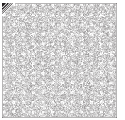
#2 서울의 한 공연장 로비. 평소 볼 수 없었던 맥주 판매 부스가 마련됐다.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관객은 저마다 맥주를 구입해 곧바로 공연장 안으로 향했다. 이를 막는 직원은 없었고, 관객은 객석에서 맥주를 마시며 가수의 노래를 즐겼다.

무대에서 샌드위치, 객석에서 맥주를?

지난해 11월 8일 네덜란드 극단 인터내셔널 시어터 암스테르담의 대표작 <로마 비극>(Roman Tragedies)을 무대에 올린 LG아트센터는 객석 내 다양한 식음료 반입을 허용했다. 지난 2000년 강남구 역삼동에 문을 연 LG아트센터가 생수 이외의 식음료 반입을 허용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저마다 커피와 콜라, 샌드위치 등 간식을 먹으며 총 5시간 30분 동안 눈앞에서 펼쳐지는 셰익스피어의 세 작품 <코리올레이너스>, <줄리어스 시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즐겼다. 극단 측은 관객이 객석이 아닌 무대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배우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리뷰를 위해 공연장을 찾은 기자도 무대 한편 소파에 자리를 잡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배우와 관객들의 표정을 살폈다. 출연 배우가 소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연기를 이어가는 다소 민망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런 관객의 자유가 관람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작품은 오히려 흡입력을 더했다.

LG아트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연은 극단 측의 공연 콘셉트에 맞춰 관객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주었던 것”이라면서 “개관 후 처음으로 식음료 반입을 허용했는데 관객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잘 지켰고 반응도 좋았다. 이런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12월 공공극장의 보수성을 깨고 공연장 내 맥주 반입까지 허용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1978년 4월 개관 이래 첫 주류 반입 공연이었다. 당시 세종문화회관은 S씨어터에서 진행한 연말 기획공연 <인디학 개론>에 1인당 맥주 2캔(1,000ml)까지 객석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했고, 공연장 로비에서 수제 맥주를 판매했다. 관객이 연말 파티



1 지난해 12월 세종문화회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주류 반입을 허용한 <인디학 개론>의 공연장 로비. (세종문화회관 제공)
 2 지난해 11월 8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연극 <로마 비극>은 관객이 무대에서 음식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와 같은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기획한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은 관객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올해 이런 유형의 공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2020 세종시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일부 공연의 객석에서 맥주를 허용했는데, 올해는 와인을 반입하고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래식 공연장, 식음료 반입 규정 더욱 엄격

LG아트센터와 세종문화회관처럼 최근 국내 공연장들이 조금씩 관객의 자유를 넓히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연장 식음료 반입 규정은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통에 담긴 생수’ 정도로 제한된다. 공연장 관리와 관객의 공연 관람 방해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화관은 객석 간격이 비교적 넓고, 촬영된 영상물을 상영해 음식물 반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와 연주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연하는 무대예술 공연장은 사정이 다르다. 객석 간격이 촘촘해 작은 움직임에도 소음이 발생하고, 움직임에 따라 시야 방해가 생긴다. 또 커피는 물론 생수가 아닌 식음료가 내는 냄새 또한 무대 위 출연진과 관객에게 방해 요소로 작용해 금지하고 있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은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연주자와 관객 모두 연주음이 아닌 소음에 민감하고, 목조 공연장의 특성상 관리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롯데콘서트홀 관계자는 “클래식 홀은 목조 구조물 관리가 생명과도 같다”면서 “객석 나무 바닥이 관객 부주의 탓에 반복적으로 젖으면 시간이 지나 나무 자체가 뒤틀리게 되고, 이는 음향 균형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통에 담긴 생수만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은 우리보다 음식물 반입이 자유로운 반면, 클래식 공연장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 극장에서는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클래식 공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주 공연장인 바비칸 홀이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와인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공연장이 ‘생수’만을 허용한다.

글 박성국_서울신문 기자

‘걷고 싶은 도시’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중림창고

1970년대 정취를 간직한 성요셉아파트 맞은편 언덕길, 허름한 무허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28일 개관한 중림창고는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267.3㎡(80.8평) 공간에 살롱, 서점, 전시실, 지하 커뮤니티 공간 등 다채로운 공간을 품고 지역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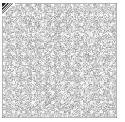


작년 11월 서울역 일대 서계 · 중림 · 회현동에 도시재생 거점 시설 8개소가 조성됐다.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2년간 입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매입해 공간을 확보한 것.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 위탁 운영을 맡은 8개 공간은 팔색조 같은 개성을 뽐내며 방문객을 부른다. 복합문화공간 중림창고(중구 서소문로6길 33)를 비롯해 공유공간으로 운영하는 감나무집(용산구 청파로73길 42), 지역 문화예술 거점 은향나무집(용산구 청파로73길 73-10), 주민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계단집(중구 퇴계로6길 3), 주민과 서울시민의 공유공간인 회현사랑채(중구 퇴계로8길 65-12), (주)요리인류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식문화 특화공간이 된 검벽돌집(중구 퇴계로8길 88)과 마을카페 청파언덕집(용산구 청파로73

길 69), 마을관리 시스템을 갖춰 올해 하반기 오픈할 커뮤니티 공간 빌라집(용산구 청파로73길 85)이 그곳이다.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공공건축

이 중 중림창고를 주목하는 건 탁월한 접근성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가 시간을 초월해 공존하는 듯한 입지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는 최근의 문화계 트렌드인 뉴트로와도 잘 어울린다. 좁은 오르막길을 따라 들어선 중림창고 맞은편에는 1971년 완공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성요셉아파트가 옛 모습 그대로 자리한다. 저층 주택이 많은 주변에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낡은 창고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때도 지상 2층까지만 올렸다. 높이는 낮췄지만 입면 길이는



1 성요셉아파트(왼쪽 주황색 건물) 맞은편에 길쭉하게 자리한 중림창고 전경.
2 2층 전시공간에 공간 디렉터 최고요의 공간설치작품을 전시했다.
3 중림창고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은 '박지호의 심야살롱'.

45m에 달해, 건물 전체를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덕분에 기차놀이하듯 길고 좁게 이어진 건물을 칸칸이 구경하는 재미가 생겼다. 콘크리트 대신 통유리로 만들어 탁 트인 벽면은 주민과의 열린 소통을 상징한다. 이처럼 휴먼 스케일을 중시하면서도 아기가 기한 볼거리를 갖춘 건축물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인 강정은 에브리아키텍츠 소장의 작품이다.

심야살롱, 심야극장으로 풍성해지는 도시의 밤

중림창고는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방이자, 신규 방문자의 유입을 유도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림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는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콘텐츠집단 USO(어반스페이스오디세이)와 손잡았다. 다양한 팝업 프로그램을 시도한 덕분에 각계 젊은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크리에이티브 팀들과의 협업이 가능해졌다.

중림창고 1층의 주 용도는 살롱이다. 매주 월요일은 주민과 함께하는 살롱공간으로, 목·금요일은 회원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 변신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레나 옴프 플러스> 편집장이었던 문화기획자 박지호가 진행하는 '심야살롱'이 인기다. 북콘서트 형식의 이 행사에는 공간 디렉터 최고요, 의사 겸 작가 남궁인, 시인 김민정과 박준 등 문화계 인플루언서들이 초대손님으로 거쳐갔다.

독특한 서울 관련 문화상품도 판매

1층에 입점한 도시서점 2호점은 서울을 주제로 큐레이션한 책과 굿즈를 위탁 판매하고 자체 개발도 한다. 단종된 서울우유 유리병을 진열해 꾸민 벽면 인테리어가 이채롭다. 서울올림픽의 추억을 담은 <88Seoul>, 목욕탕 사진만 모은 <서울의 목욕탕> 등 색다른 독립출판물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림창고 내에 입주한 '중림동 수선집'도 눈여겨볼 만하다. 원래 해당 지역에서 의류 수선을 하던 할머니가 그대로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다.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쫓겨나듯 정든 집과 가게를 떠나야 했다면, 여전히 '그때 그 수선집 할머니'가 맞아주는 중림동 수선집의 존재는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재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 밖에 2층에는 세 곳의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하1층에서는 매달 1회 심야극장을 운영해 영화를 상영한다. 2016년부터 서울도시재생센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다 2019년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중림창고를 비롯한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이종필 이사장은 "도시재생 거점 공간은 커뮤니티성을 강화한 공간으로, 동네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만나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을 키워가는 곳"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서울로7017을 통해 찾길이 사람 길로 바뀌었다면, 여세를 몰아 보행자 중심 도시의 가치를 확산시킬 장소가 이들 도시재생 거점"이라며, "지역 자생력을 키워 지속가능한 공간을 지향하면서 양질의 외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 고경원 자유기고가 사진 제공 서울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주민의 힘으로 이육사의 이야기를 펼치다

문화공간 이육사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이육사의 유고시 〈광야〉가 발표된 날이기도 한 12월 17일에 ‘문화공간 이육사’가 개관했다. 공간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를 기념하고, 주민 커뮤니티로서 지역문화를 가꾸는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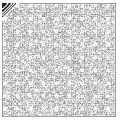
성북구가 건립하고, 성북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문화공간 이육사는 이육사를 기념하는 공간이자 지역 내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요구가 만들어낸 공간으로, 공간 곳곳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들로 채워진다. 문화공간 이육사라는 시설 명칭부터 이육사의 시 제목에서 따온 층별 명칭(1층 청포도 라운지, 2층 광야 상설전시실, 3층 교목 기획전시실 및 커뮤니티 공간, 4층 절정 옥상정원)이 그렇고, 이육사와 관련한 전시의 구성이 그렇다.

이육사를 기념하는 공간

이육사는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종암동 62번지에 거주했다. 현재 문화공간 이육사가 있는 곳은 당시 이육사가 살던 곳과

그리 멀지 않다. 공간은 1층부터 4층까지로, 각 층에 전시된 이육사와 관련된 다양한 장치들이 그를 기념하고 있다. 우선 1층 ‘청포도 라운지’는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떠올릴 수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공간이다. 이육사와 종암동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과 안동,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한 흔적은 디지털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선 이육사의 연보를 살펴볼 수 있다. 검은색의 굵은 밧줄이 연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이육사의 짧지만 강렬했던 인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층 ‘광야 상설전시실’에 들어서면 ‘이육사, 어떻게 알고 계세요?’라는 물음을 맞닥뜨리게 된다. 독립운동가, 민족시인, 저항시인으로 알려진 이육사의 생애와 그간 수인 번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됐던 이육사



1 1층 청포도 라운지.
2 문화공간 이육사 외관.
3 2층 광야 상설전시실 전경.

란 이름의 또 다른 뜻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육사가 작품을 발표한 대표 잡지, 그의 동지와 친구들, 이육사의 외동딸 이육비 여사의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이육사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다. 체험존에선 이육사의 시 <꽃>, <절정>, <교목>을 필사할 수 있으며, 인터랙티브 월에서 이육사의 시어를 터치하면 그 시구가 들어간 시 <청포도>, <절정>, <광인의 태양>의 전문을 볼 수 있다.

3층 '교목 기획전시실 및 커뮤니티 공간'에선 개관기념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기획전시 <식민지에서 길을 잃다, 문학으로 길을 찾다> (~3월 21일)가 그것으로 이육사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친일파, 문학인과 그 사이 평범한 조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체험존에선 지금의 내가 이육사가 살았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순응, 불응, 저항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4층 '절정 옥상정원'에는 이육사의 친필을 집지한 기념조형물이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 놓여 있는 의자에는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이육사의 고향 안동 원촌 마을, 이육사가 거주한 중암동 62번지,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숨을 거둔 중국 베이징 등창후통 28

호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틈틈이 공간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에서 중암동과 성북구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으며, 1층 청포도 라운지에서 한용운, 김광섭, 조지훈, 박완서 등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인들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공간

1층 청포도 라운지와 3층 교육 기획전시실 및 커뮤니티 공간에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3층은 가변형 공간으로 보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의 기획전시가 끝나면 강의, 문화체험,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열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육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이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문화시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랜 기간 지역에 거주한 지역민들이다. 때문에 그들이 이용할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공간 운영에 반영하는 이러한 형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문화공간 이육사

판타지 세계로의 초대

뮤지컬 〈빅 피쉬〉와 〈웃는 남자〉

뮤지컬은 판타지다. 약 2시간 동안 무대 위 판타지 속으로 관객을 얼마나 빨아들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뮤지컬 〈빅 피쉬〉와 〈웃는 남자〉는 환상적 무대연출과 서정적 넘버로 관객이 원하는 판타지를 충족시킨다. 유명 원작 소설과 영화를 토대로 각색했으며, 유랑극단이라는 환상 공간이 주요 매개가 되는 점도 닮았다. 때로는 너무도 유명한 원작이 타 장르 창작물에 독이 될 때도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은 영리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를 극복했다. 전자는 낭만적 동화 세계를 노래하고, 후자는 비극적 인물을 통해 따뜻함과 정의를 말한다. 색다른 두 판타지에 흠뻑 빠져보시길.

환상적 동화로 그려낸 웰메이드 '사부곡'(思父曲)

〈빅 피쉬〉 2019. 12. 4~2020. 2. 9,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2. 22~2. 23,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뮤지컬 〈빅 피쉬〉는 주인공 에드워드 블룸의 일대기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환상과 현실이 묘하게 섞여 분간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그래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작품은 긴 서사에 녹아든 '부성'(父性)을 노래하며 '당신은 어떤 이야기로 남을 것인지' 객석에 되묻는다.

1막에서는 '낭만적인 허풍쟁이'인 주인공 에드워드의 진기한 모험담과 운명적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2막은 그의 아들 윌이 아버지의 모험담 속에 숨겨진 사실과 본격 마주한 뒤 그의 정신적 유산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1998년 미국에서 출간된 대니얼 윌리스의 동명 소설과 2003년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를 각색했다.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뮤지컬 초연작이기에 더욱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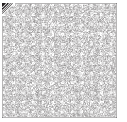
원작과는 큰 틀에서 같은 줄거리를 택했다. 다만, 무대라는 특성상 일부 줄거리만 가볍게 건드렸다. 영화 속에서도 명장면으로 꼽히는 '수선화 프리포즈' 장면, '강 회귀' 장면 등은 화려한 무대연출을 통해 더욱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연극적 요소와 현실적인 동화가 만나 원작의 컴퓨터그래픽(CG) 못지않은 황홀함을 준다. 특수영상, 퍼펫, 인형 등을 활용한 점도 특징적이다. 마녀, 거인 칼, 거대 물고기 등 원작의 등장인물을 무대화하기 위해 사용한 요소들에 다소 디테일이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있다. 그럼에도 '동화적 눈'을 가진 관객이라면 이 역시 너그럽게 이해할 수준이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도 돋보인다. 원작을 아직 접하지 못한 관객이라면 현재, 과거, 이야기 안팎을 오가는 설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주인공 남경주, 박호산, 손준호를 비롯해 구원영, 김지우, 이창용, 김성철 등 배우들의 내공이 연극적 긴장감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줄거리 특성상 무대를 강하게 때리는 넘버는 부족하나, 배우들이 노래하는 화음은 귀를 풍성하게 한다. 잔잔하면서 흥겨운 재즈, 컨트리 송, 팝 넘버가 다양하게 사용됐다. 작품을 본 관객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으라면 1막 마지막 '수선화 프리포즈' 장면을 들 것이다. 창작진은 이 장면에서 수선화 향기(실제 수선화는 향이 거의 없으나, 굴과 다른 향을 섞어 후각 효과를 조합했다)를 객석 여기저기에 흩뿌리며, 무대 아래를 열어 수선화 밭을 연출했다. 또 무대 위로 수선화 꽃잎을 뿌리는 동시에, 무대 세트를 기울여 만든 거울 효과로 환상성을 극대화했다. 전반적으로 밝은 작품임에도 눈물이 빠지지 않는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매번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면, 객석에선 많은 이들이 훌쩍이는 소리로 화답한다. 재연이 기다려지는 웰메이드 '사부곡'(思父曲)임은 틀림없다.

비극 앞에서도 웃어야 하는, 웃을 수밖에 없는 잔혹 동화

〈웃는 남자〉 1. 9~3. 1,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상처, 가난, 장애, 인신매매, 고문." vs "웃음, 치유, 정의, 황홀함, 낭만." 이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느낌의 이 단어들을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 한 작품 안에 같이 버무리기 힘든 소재임이 분명하다. 하나 양 극단은 통한다 했던가. 잔혹한 운명 같은 작품 안에



1 뮤지컬 〈빅 피쉬〉 공연 모습. (CJ ENM 제공)

2 뮤지컬 〈웃는 남자〉 공연 모습. (EMK Musical Company 제공)

서 슬픔은 때로 웃음이 되며, 기쁨은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이를 한데 엮어낸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에 한 번 경탄하고, 이를 환상적으로 구현한 무대에 또 놀라게 만드는 작품이다. 2018년 초연 당시 국내 창작 뮤지컬 중 이례적으로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각종 시상식에서도 여러 상을 휩쓸며 검증된 수작이다. 지난해 인기를 끈 ‘조커’ 캐릭터도 〈웃는 남자〉의 주인공 그윈플렌을 모티브로 탄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극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다.

작품은 동명 소설을 토대로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 입이 찢어져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순수한 그윈플렌이 주인공이다. 인신매매단에 납치돼 입을 찢긴 주인공은 떠돌이 약장수에게 거둬지고, 이들은 유랑극단을 차려 유명세를 탄다. 이석훈, 규현, 박강현, 수호가 그윈플렌을 맡았다. 그의 불운한 여정을 따라가며 정의와 인간성이 무너진 세태를 비판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조명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한 동명의 프랑스 영화에서도 많은 이미지를 차용해 무대에 녹여냈다.

초연 때와 가장 달라진 포인트는 무대 서사 변화와 넘버의 변주·보강이다. 초연 당시 대작 소설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다소 엉성하게 구성된 서사와 늘어지는 구성으로 지적받았지만 이번엔 한층 견고해졌다. 2막에서는 일부 장면의 순서를 바꿨다. 검투 장면과 대사도 조금씩 손을 대 연기의 디테일을 살렸다. 프롤로그의 선팅 난과 장면에서는 실제 배를 새로 제작해 보는 맛을 더했다.

사실 작품을 논할 때 넘버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지킬 앤 하이드〉, 〈엑스칼리버〉, 〈드라큘라〉 등으로 한국 뮤지컬 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노래가 극의 서정성을 강화한다. 물론 작품이 달라도 그의 곡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먹히는’ 멜로디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기존 넘버를 리프라이즈해 주제의식을 강화했으며, 술하게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전주, 간주는 과감히 뺐다.

환상 속에서 쉽게 헤어 나오기 힘든 작품이다. 주제의식을 깊이 파고들자면, 좀처럼 웃기 힘든 작품일 것이다. 그럼에도 판타지 안에 흠뻑 젖는 경험은 큰 짜릿함을 준다. 초연 후 지난해 4월 1,300석 규모의 도쿄 닛세이 극장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선보여 해외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글 김기운 동아일보 기자

벨 에포크 시대를 빛낸 화가들

전시 <틀루즈 로트렉>과 <알폰스 무하>

1871년부터 1914년까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벨 에포크’ 시대는 새로운 서양미술 사조를 탄생시키고 꽃 피웠다. 새해의 설렘이 찾아오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2월, 벨 에포크 시대를 불꽃처럼 빛낸 두 화가의 전시가 서울에서 진행된다. 바로 앙리 드 틀루즈 로트렉과 알폰스 무하. 석판화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20세기의 그래픽아트라 불리는 포스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이 시기에, 두 화가는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뮤즈로 삼아 작업해온 이 두 화가는 포스터를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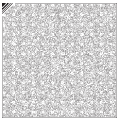
파리의 밤을 채색한 물랭 루즈의 작은 거인

<틀루즈 로트렉> 1. 14~5. 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로트렉이 없었다면 앤디 워홀은 없었을 것이다.” 1960년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전시를 개최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선보였다. 상업미술의 선두주자 워홀의 미학을 예고한 선구자로서 로트렉을 추앙한 것이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 그래픽아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로트렉의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현대 포

스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로트렉은 프랑스 남부 알비의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뼈가 잘 부서지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137cm의 단신으로서 평생 지팡이에 의지한 채 살아야 했다. 승마와 사냥을 즐기는 귀족 생활이 불가능해진 그는 평생 그림 그리기에 집중했다. 18세가 되던 1882년 프랑스 파리에 매혹되면서 36세에 짧은 인생을 마치기까지, 예술의 거리인 몽마르트와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카바레 ‘물랭 루즈’ 등을 무대로 파리 보헤미안의 라이프스타일을 날카롭게 그려내며 5,0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 1 <톨루즈 로트렉> 전시 전경. (메이드인뷰 제공)
2 <알폰스 무하> 전시 전경. (마이아트뮤지엄 제공)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선보이는 로트렉의 첫 번째 단독전으로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헤라클레이돈 미술관이 소장한 포스터와 석판화,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 수채화 등 150여 점의 작품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전시는 ‘연필 드로잉’, ‘뮤즈’, ‘몽마르트 카페’, ‘여자’, ‘잡지와 출판’, ‘말과 승마’, ‘현대 포스터의 선구자 톨루즈 로트렉’ 등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눈여겨볼 작품은 1893년 작 <제인 아브릴>과 1891년 작 <물랭 루즈, 라 굴뤼>, <아리스티드 브뤼앙>(1893) 등 물랭 루즈의 댄서와 가수들을 그린 포스터다. 로트렉은 당대 최고의 카바레 여성 댄서들의 강장 동작을 역동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제인 아브릴은 2001년 영화 <물랑 루즈>에서 니콜 키드먼이 분했던 주인공 ‘샤틴’의 모델이었다.

매혹의 곡선, 아르누보 양식의 선두주자

<알폰스 무하> 2019. 10. 24~2020. 3. 1, 마이아트뮤지엄

“톨루즈 로트렉풍의 포스터로 가득했던 파리가 이제는 알폰스 무하로 대표되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바뀌었다.” _피터 비틀리치(체코 찰스대 철학부 미학 교수)

넝쿨 같은 여인의 머리카락, 독특한 서체, 자연에서 차용된 화려한 장식, 마치 만화 속 여신의 모습을 보는 듯 독창적인 화풍을 자랑하는 체코의 국민 화가 알폰스 무하의 전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마이

아트뮤지엄에서 진행 중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단조로운 직선에서 벗어나 유려한 곡선과 섬세한 꽃무늬 등 화려함에 심취한 파리의 건축과 공예는 아르누보 양식으로 뒤덮였다. 무하는 ‘새로운 예술’을 뜻하는 아르누보를 미술의 세계로 가져와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1860년 7월 24일 슬라브 모라비아 지방의 이반치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무하는 어렸을 때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와 프레스코화, 조각 등에서 영감을 받아 화가의 삶을 선택한다. 1887년 프랑스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에서 수학하며 가난한 화가의 삶을 이어오다 1895년 파리 연극계의 슈퍼스타인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지스몽다> 포스터 작업을 하면서 순식간에 스타 작가로 떠오른다. 사람의 키에 육박하는 거대한 종이에 여배우를 신성한 ‘여신’으로 변모시킨 그의 그림 스타일에 파리는 열광했다. 이후 각종 상품의 광고 포스터에 미학을 더한 작품으로 상업적 인기를 끌던 그는 1910년 돌연 조국인 체코로 돌아와 자신의 민족인 슬라브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대작을 그리며 독립투사로 일생을 마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판화, 유화, 드로잉 등 오리지널 작품 230여 점을 그의 삶의 여정에 따라 선보인다. ‘파리 연극 포스터, 사라 베르나르와 무하’,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린 광고 포스터’, ‘대중을 위한 인쇄 출판물’, ‘매혹적인 아르누보의 여인들’, ‘고국을 위한 애국적 헌사’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 그를 스타의 반열에 올렸던 작품 <지스몽다>와 사계절을 여신으로 표현한 <사계-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만날 수 있다.

글 박지현_파이낸셜뉴스 기자

세계의 끝을 여행하다

책 〈극야행〉과 〈인듀어런스〉

세계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장소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이는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에 있는 어딘가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광막한 우주 공간에 펼쳐진 별무리의 꼬트머리를 상상할 듯하다. 그렇다면 세계의 끝을 향해 떠난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지구촌 극지 탐험기 〈극야행〉과 우주 여행 에세이 〈인듀어런스〉는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인간의 발길이 가닿을 수 있는 세계의 끝을 탐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적지 않다.

밤의 한복판으로 떠나다

〈극야행〉 가쿠하타 유스케 지음, 박승희 옮김, 마티

우선 제목에 담긴 ‘극야’(極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넘어가자. 극야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철후의 밤이다. 극지방에서는 위도에 따라 길게는 3~4개월 해가 뜨지 않는다. 북극점 부근은 1년 중 절반이 극야다. 일출과 일몰을 1년에 한 번씩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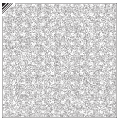
저자인 가쿠하타 유스케는 오지 탐험에 몰두해 있는 일본의 탐험가다. 그가 오지를 돌아다니는 이유는 “시스템의 바깥 세계”를 동경해서다. 그는 극야의 세계를 인간이 아직 체감하지 못한 세계라고 여겼다. 극야의 세계를 헤매다가 북극해에서 움트는 태양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럴 수 있다면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저자의 여정은 지구상의 최북단 수렵 마을인 시오라팔루크에서 시작됐다. 그는 식량과 텐트를 실은 썰매를 끌고 개 한 마리와 함께 2016년 12월 6일 밤의 심연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탐험은 빙하를 넘은 뒤 빙상(대륙빙하)과 툰드라 지대를 거쳐 북극해에 도달하는 코스였다. 여정이 험난했을 건 불문가지다. 무지막지한 블리자드(눈보라를 동반한 강풍) 탓에 천측(天測)을 통해 방향을 가르쳐주는

육분의를 잃어버렸고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지하는 신세가 됐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가없이 펼쳐진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가야 기착지나 목적지에 도달할지 알 길이 없었다. 가끔은 지금 걷는 길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불안을 견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믿었던 내 신체 감각을 버려야 했다. … 북극성이 가리키는 방위만을 믿어야 한다. 한 점 의심 없이 의지하고 북극성의 말씀에 매달려 나아가야 한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간단없이 이어졌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식량이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기착지에 미리 방문해 쟁여두었던 식량을 백곰이 먹어치운 것을 알고 저자는 좌절한다. 출발지로 돌아가려면 극야가 끝나길 기다려야 했다. 사고무친의 땅에서 굶주리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 탐험에 동반한 개라도 잡아먹어야 할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이야기의 결말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확실한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삶과 죽음의 뜻을 되새길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별빛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열심히 별을 쳐다보고 있자니 별마다 개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생명줄을 쥔 별들은 가스와 먼지와 암석이 응축된 무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인 것만 같았다.”



지구 밖에서 보낸 340일

〈인듀어런스〉 스콧 켈리 지음, 홍한결 옮김, 클

미국의 베테랑 우주인 스콧 켈리를 아는지. 그는 총 네 차례 우주를 여행했는데, 2015년 3월 28일부터 무려 340일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살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는 미국인 중 역대 가장 긴 체류 기간이었다. 그가 그토록 오랜 기간 우주에 머문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우주에서 머물 수 있는지, 우주 공간에서 인체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인류의 우주 프로젝트가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은 화성에 인간을 보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주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실험 대상'이 돼야 했다.

〈인듀어런스〉는 켈리의 우주 생활기를 담고 있다. 그는 ISS에 머물면서 상추를 길렀고 백일홍도 키웠다. 주된 생활 공간은 승무원실을 일컫는 CQ(Crew Quarters, 공중전화 부스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였다. 잠은 침낭에 들어가 공중에 뜬 상태로 잤다. 양치질할 때는 빨대로 물을 한 모금 빨아서 입을 행군 뒤 그냥 삼켜야 했다. 물을 뱉을 곳이 마땅찮아서였다. 대원들끼리 식사를 할 땐 음료 방울이 떠다니곤 했는데 누구 것이든 먼저 보는 사람이 입으로 받아먹는 게 관행이었다.

그렇다면 저자가 우주인으로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건 언제였을까. 바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때였다.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언제나 할 말을 잃곤 했다. 뭐랄까, 남들 모르게 나 혼자만 지구와 친하게 알고 지내는 기분이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내게 소중한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저 아래에 있구나.’”

우주에서 산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힘든 건 그리움이었다. 신선한 요리가, 싱그러운 과일의 향기가,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그리웠다. 폭신한 베개를 상상할 때도 많았다. 대원 중엔 지구에서 녹음해온 빗소리나 새소리를 자주 챙겨 듣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무감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미덕은 작지 않다. 340일간의 우주 생활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을 때 저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였다. 그는 “우주에 있으면서 물만큼 촉감이 굉장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비행복 차림 그대로 풍덩 빠졌다. 물속에 폭 잠겼을 때의 감동은 어마어마했다.”

글 박지훈_국민일보 기자

사진 제공 마티, 클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세요.

9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면 좋겠는데, 워킹맘이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방학 동안 아이가 이것저것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요, 아이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을까요? 어떤 게 좋을지 추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방학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녀에게는 마냥 즐거운 방학이지만, 부모는 넘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느라 머리가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일하는 엄마라면 부담이 더욱 크지요. 아이는 학업의 부담을 잊고, 부모는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재밌는 전시와 공연을 소개합니다. 모처럼 아이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시·공연에 관련된 대화를 나누며 추억을 쌓으시길 바라요.

생생한 역사 여행 떠나볼까?

〈소리, 역사를 담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역사적 순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사진·영상 등 시각자료로만 접하던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소리로 느끼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전시장 스피커에서는 90여 건의 소리 기록이 흘러나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슬픈 우승 소감, 광복 1주년 기념 연설을 하는 김구 선생의 결의에 찬 육성,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알리는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외에도 국민체조 음악, 통금 사이렌, 국기 하강식 시보 등 지금은 사라진 일상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관람을 마치고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사소한 소리도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일시 ~3월 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장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캐릭터 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전시

〈미니언즈 특별전〉

영화 〈슈퍼배드〉 시리즈에 등장한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미니언즈’를 주제로 한 전시입니다. 전시장은 영화 속 실험실을 그대로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은 디테일도 살아 있어 마치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단순히 눈만 즐기는 전시는 아닙니다. 체험을 하며 오감으로 미니언즈와 친해질 수 있죠. 악당 그루의 방귀 충을 직접 싸보고, 브렛의 춤을 따라 해 볼 수 있어요. 커다란 바나나 풍선과 수만 개의 바나나 볼로 이뤄진 초대형 볼풀장에서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답니다.

일시 ~3월 15일(일) 오전 10시~오후 8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

장소 인사 센트럴 뮤지엄

관람료 어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3천 원, 어린이 1만 1천 원

〈투 더 문 위드 스누피〉(To the Moon with Snoopy)

1969년 5월 18일, 당시 인기 절정이던 스누피는 아폴로 10호에 탑승했습니다. 훗날 최초로 인간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아폴로 11호의 시범 비행이었죠. 이 우주선은 달 표면에 매우 가까이 접근했고 스누피는 ‘달로 향한 최초의 비글’이 됐습니다. 스누피 특별전은 달 착륙 50주년과 스누피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입니다. 스누피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마스코트가 된 과정을 다양한 그림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스누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회화 · 조각 · 설치 · 미디어아트 · 스트리트아트를 감상하며 현대미술을 보는 눈도 쑥쑥 키울 수 있어요.

일시 ~3월 15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장소 롯데뮤지엄

관람료 어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2천 원, 어린이 9천 원

어린이 눈높이에 꼭 맞는 연극

〈고추장 떡볶이〉

“집에 엄마가 없다! 우리 힘으로 모든 걸 해내야 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는 초등학교 3학년 비룡이와 유치원생 백호만 남습니다. 청소도, 음식도, 학교 갈 준비도 모두 알아서 해야 하죠. 두 형제의 좌충우돌 집안일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하얀 떡국을 만들기 위해 치약을 뿌리는가 하면, 빨간 떡볶이를 하겠다며 딸기잼을 듬뿍 덜어 넣기도 하죠.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던 형제는 점점 자기 힘으로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갑니다.

무대에는 실제 요리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떡볶이를 직접 시식해볼 수도 있어요. 배우들에게 직접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싱어롱 타임’도 어린이 관객의 흥을 돋웁니다. 공연을 보고 나면 자녀와 나누고픈 이야기들이 한가득 쌓일 거예요. 부모가 출근한 후 아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꽃’을 피워보세요.

일시 ~2월 23일(일) 화~금 오후 3시, 토 오후 1시 · 4시, 일 오후 3시

장소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어른 2만 5천 원, 어린이 2만 원

답변 최지은_어린이조선일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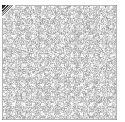
남대문 시장 건너편, 양동 4지구에 묻힌 시간



양동지구 골목길.

2019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서울역이 건너다보이는 곳에 한동안 붙박여 있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지 않은 기미들에 침잠하면서 그것이 알려주는 의미들을 감각했다. 쓰라리기도 하고 애뜻하기도 하고 낮이 뜨거워지거나 월각 쏟아내야 할 서러움의 솟구침, 이런 느낌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간이었다. 서울역은 아직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일제강점기의 유물 그대로였다. 건물 앞쪽의 모퉁이엔 구두를 닦는 청년들이 있었고 신문더미를 옆구리에 끼고 그날의 주요한 사건이 실렸다고 소리치는 소년들이 느리게, 혹은 바빠 걸어갔다. 누런 종이봉투에 가짜 서류를 담아 들고 더러 실밥이 흘러내린 낡은 양복을 입은 점잖은 신사. 급하게 직원을 구하러 나온 듯 보이려는 그 얼굴엔 자상함과 비열함이 네온처럼 들어나도 추레함은 감춰지지 않았던 아저씨들. 등에 둘러업은 아이의 머리가 부러질 듯 포대기 밖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붙잡고 악착같이 ‘쉬어가길’ 강권하는 젊은 여자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방금 기차에서 내린 농촌 사람들의 꿈을 ‘돈벌이’로 만들려는 인신매매의 달인들은 아주 흔했다. 남자들은 쉬어가고 소녀들은 팔려갈 곳은 바로 길 건너편 언덕배기에 ‘양동’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 뜨내기로 사는 소년이나 소녀, 청년들은 그 당시의 나처럼 ‘전쟁이나 나지!’, ‘이 나라는 언제 꼭 망하나!’ 하고 자폐와 자폭의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매매춘과 인신매매의 현장인 이곳 근처엔 경찰서도 있었고 마음대로 빨갱이를 만드는 무서운 곳도 있었으며 그곳에서 가까운 곳엔 미군부대와 국방부도 있었지만 새벽시장처럼 붐비고 쓰레기더미처럼 지저분한 이곳은 성욕이 남성 중심으



로 이해되던 시대의 '자연'이었다. 나는 소설가랍시고 이곳을 넘보면서 밀도 끝도 없는 '사회불만분자'가 되어갔었다. 지금 생각하면 사회 불만도 힘이 있어서 가능했다. 누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사회나 세상을 증오하는 것도 다 힘이 드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젠 힘이 없어 그런 감정을 잠시도 마음에 들이지 못해 저절로 선풍하고 무뎠해졌다.

양동은 그사이 여러 번 재개발되었다. 대우빌딩은 물론 그 뒤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한 인상의 빌딩들, 그리고 밀레니엄 힐튼 호텔. 거의 다 낫 뜨거운 추억의 '양동' 땅이었다. 나는 느릿느릿 그런 곳들을 걸어서 남대문시장이 건너다보이는 곳으로 왔다. 힐튼에서 굽어진 찾길을 건너면 넓고 초췌한 건물들이 보였다. '개발'에도 살아남아 시간과 세월을 간직한 집들. 아주 가까운 시멘트 계단으로 이어져 있었다. 딱히 바람직한 비유는 아니지만,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양동지구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1980년대 이곳에는 시각장애인들과 하루별이 노동자들이 살았고 매매춘 여성들도 살았다. 이곳으로 나를 데려간 사람은 소설가 P였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의 동지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남주 시인의 옥바라지를 하던 그. 그와 함께 처음 그곳의 어느 판잣집으로 들어설 때, 아마 어렵게 겨우 기어 올라갔던 것 같다. 집 주인의 첫인상은 아름다움 자체였다. 얼굴에 푸근함, 자태엔 부드러움, 목소리는 아늑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부부의 아이들과 양동의 매매춘 여성들의 어린 자식들을 돌보고 있었다. 시각장애인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가면 어린 아이들은 홀로 남겨지고 그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쳤다. 무슨 단속에 걸려 하루나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이들만 남은 매매춘 여성의 어린 자녀들. 그가 데려와 '엄마' 노릇을 하는 그의 집. 나는 그를 '천사'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런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름만 '갑'이니 '특권'이니 하는 신분과 계급으로 나뉜 사람살이는 여전히. 시각장애인 부부는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부부들은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요. 아이는 가지고 놀던 공이 장롱 밑바닥으로 굴러들어가서 그걸 꺼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매매춘 여성이 어머니일 경우 단속에 걸리면 하루 이틀은 물론 며칠이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턱대고 아이들만 있는 거죠. 젖먹이에서 서너 살까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는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아기는 젖병에 우유를 담아 품에 안고서 먹였다. 나는 천사를 만나러 자주 그곳에 갔다. 현재의 양동 4, 5지구. 나의 현실은 천사의 현실과 달랐고 그렇게 살 수는 없었지만 사회적 편견과 신분적 '경멸'에 분노와 의문을 던질 수는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의 삶과 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미신(迷信)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와 함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생활이 서로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면, 그래서 계급 간에 적대감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면, 물정 모르는 감상(感傷)일까?

그 가까운 지형의 쪽방촌. 골목들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집들. 더러 층수를 높이고 치장을 잘한 건물도 있지만 여전히 세월을 고스란히 품은 낡고 닳고 삭은 집들 앞에서 그리움에 먹먹해졌다. 세를 놓겠다, 달세도 받는다는 종이가 붙은 집. 하숙도 가능하다는 쪽지. 광고지와 고지서들이 빠져나오게 쏘인 우편함. 어떻게 마르고 색이 바랜 꽃들의 화분이 놓인 집. 집. 집. 집.

내가 어떤 이유로 그 천사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내게 보여줬던 무언(無言)의 해방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 편견 없이 산다는 것. 공생을 실천하는 삶에 대한 아득한 느낌까지.

그래서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 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의 힘에 결눈질하면서도 자유를 느끼거나 말할 수 있을까?

기자라는 완장

기자직에 대한 단상

기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기자일이 싫어서는 아니다.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금 시원섭섭하기도 하지 만 20년 동안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가능성보다 더 게을러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 후배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려놓기로 했다.

내려놓으니 보이는 것들

무거운 갑옷을 벗는 기분이었는데 갑옷을 벗으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회사가 달리 보였다. 따져보니 내 글에 대해서 가장 원고료를 많이 쳐주는 곳이 회사였다. 월급으로 생각하니 적었는데 원고료로 생각하니 많았다. 기자 갑옷을 벗고는 회사에서 기사를 쓰는 만큼 써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내가 맡았던 필자들이 생각났다. 나보다 공력이 뛰어난 그들에게 그동안 턱없이 적은 원고료를 주고 글을 받아왔던 셈이다. 다른 언론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유명 작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원고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를 텀으로 쓰는 사람의 글을 받아온 것인데, 그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생각밖에 대변하지 못한 셈이다.

보이지 않는 특권들도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특권은 '질문할 권리'였다. 어떤 일의 책임자에게 접근할 특권이 있었다. 누구에게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자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특권이였다. 일반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려고 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기자들은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직접 물어본다.

문제 제기에도 대한 답을 들을 때도 특권은 똑같이 적용된다. 때로는 문제 당사자보다 기자가 앞서기도 한다. 2018년에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위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사과 행사를 할 때도 그랬다. 사과를 받아야 할 문화예술인보다 기자들을 앞에 앉혔고 문화예술인들이 사과의 형식과 내용과 관련해 따져 묻자 "이 자리는 기자들에게 설명할 자리니 기다려달라"라며 그들을 외면하려 했다.

일반인들은 기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앉아서 받아본다. 보도자료가 이메일로 꼬박꼬박 들어온다.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부지기수다. 기자간담회에 가면 '프레스킷'이라는 이름의 자료 종합 선물 세트를 준다. 그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캥기는 게 있을 때는 안 알려주고 안 보여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기자들은 '독자의 이름으로' 따진다. 독자는 국민의 이름으로 확대되



기 마련이어서 자신에 대한 박대는 국민에 대한 박대라고 확대 해석한다. 답을 주지 않으면 답을 줄 기회를 주었는데 답을 주지 않았다고 알리겠다며 경고한다. 그때는 그것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가기

기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루지 않고도 ‘자격을 가진 자’가 되곤 한다. 영화 담당 기자는 영화를 담당한다는 것만으로 평론가처럼 영화를 평하고, 공연 담당 기자와 미술 담당 기자 역시 그렇게 공연과 그림을 평한다. 영화 전문 기자나 공연 전문 기자, 미술 전문 기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엇그제까지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오더라도 문화부만 오면 갑자기 평론가가 되기 일쑤다.

그래서 기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착각하곤 한다. ‘스스로 이룬 자’ 옆에 서서 그들의 지위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것이다. 그들의 옆에 서기 위해 스스로 한 것도 없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훈수를 두

기도 한다. 여러 직업 중에 얹치없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는 몇 안 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그렇게 거저먹던 시간과 이제 이별하려고 한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자격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기자라는 완장을 떼려고 보니 이 지면에 원고를 쓸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동안은 오랜 문화부 기자의 경험과 다양한 서울시의 거버넌스 위원회 참가 경험으로 원고를 썼지만 이름 뒤에 붙는 ‘기자’가 부담을 덜어주었다. 여전히 필자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스럽다.

옛 동료들이 ‘기레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기러기처럼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다. 기자라는 완장을 떼고 더 이상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두벅두벅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걱정도 된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갑옷을 내려놓아서인지 마음은 한없이 가볍다.

글 · 사진 제공 고재열 시사IN 기자



미술관은 어디로 가는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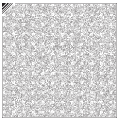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시는 분야별 관람률 15.3%로 3위를 차지한다. 물론 영화 관람(75.8%)의 압도적인 수치에 비할 순 없지만 매년 전시 관람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열망과 절망이 함께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까지 박물관·미술관 186곳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2019년 6월 기준 전국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1,310개로 늘려 이용률을 31%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한편 이런 정부 계획과는 반대로 지자체 박물관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다는 기사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무언가를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열망과 절망이 공존한다.

서울도 서울시 산하의 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여 ‘수도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하고자 했다. 서울올림픽에 맞춰 박물관과 미술관 기능을 합친 ‘서울시 미술박물관’을 개관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건립 부지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 끝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리하여 경희궁 내 옛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개조, 1988년 서울시립미술관을 개관했다. 이후 서울시립미술관은 옛 대법원 건물로 옮겨와 현재의 서소문 본관에서 2002년 재개관했다.

이제 개관 30주년을 넘은 서울시립미술관은 규모나 콘텐츠 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박물관·미술관



1, 2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외부와 내부 전경.
3 어린이갤러리 전경.

의 오랜 역사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확장세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크게 구분 짓지 않고 뮤지엄(museum)으로 부르는 서구 제도 기관의 역사는 18세기 엘리트 중심, 19세기 부르주아 중심에서 20세기에 대중 중심으로 이동한다. 관람객으로 명명된 대중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뮤지엄의 정책 변수로 작용한다. 역사학자 도미니크 폴로(Dominique Poulot)는 그의 저서 <박물관의 탄생>에서 “지식과 즐거움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박물관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근대적 의미의 뮤지엄은 오늘날 아시아 도시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겪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네트워크형 미술관’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고 곳곳에 분관을 계획하는 것은 이러한 지식과 즐거움을 다층적으로 펼치면서 미술관이라는 공공장소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대중과 도시 미술관의 미래

서소문 본관으로 자리를 옮긴 서울시립미술관은 2004년 남서울 미술관에 이어 2013년 북서울미술관을 분관으로 개관한다. 이 밖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병

커 등 총 7개 분관을 가진 서울시립미술관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2021년 예정), 서울사진미술관(2023년 예정), 서서울미술관(2023년 예정) 등을 추가 개관할 예정으로 명실상부 미술관 복합체(complex)로 거듭나는 중이다. 현재 규모나 운영 면에서 분관의 만이 격인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은 지역 기반의 복합문화시설로 설계되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미술관’ 기능만큼 지역주민의 여러 문화적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했던 북서울미술관은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5~6년 사이에 방문객이 약 두 배 증가(2019년 기준 약 77만 명)하는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 애호가들도 자주 찾는 기관이 되었다. 북서울미술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사이에 놓인 근린공원 부지에 자리한다. 수락산과 불암산 등 인근 산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 디자인은 겉으로는 역동적인 모양새를 보이거나 내부 구성은 단순하다.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설계한 북서울미술관은 2013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전시와 교육을 비롯한 공간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대미술관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도 어린이갤러리와 같은 특별 공간을 조성하고, 근린공원 내 조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세심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했다. 특히 어린이 전시의 새로운 형식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의 어린이 체험 공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현대미술 작가들이 큐레이터들과 협업하여 시각예술의 조형 요소들을 차근차근 풀어낸 흥미로운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양적으로 확장하는 미술관의 수만큼 미술관의 위기론도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도미니크 폴로의 말을 빌리면 “문화산업과 정체성 정책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중문화와 대결해야만 하는” 미술관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대중이 바라는 미술관의 모습과 권위 있는 시각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미술관이 보여줘야 하는 역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갈등의 순간을 서울의 미술관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직까지 북서울미술관은 그만의 방식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도시의 미술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빛을 발해야만 하는, 소리 없는 전쟁터 속에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글 정다영_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공간> 기자를 거쳐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고 있다. 전시 기획과 시각문화 연구를 진행하며,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다.

사진 제공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과잉은 결핍이 꾸는 꿈

아시아 아르젠토 감독의 <아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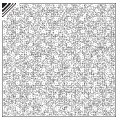
희망도 변화도 없는 지옥의 한철 같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다. 홀로 세상과 맞서야 하는 아이들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꿈꿔보지만 결국 절망의 순간이 오롯이 견뎌내야 할 현실이라는 사실을 흉터처럼 마음에 새기고야 만다. 그렇게 어린 시절은 아련한 추억이 아닌, 지독하게 벗어나고 싶은 수렁이기도 하다. 토드 솔론즈 감독의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이다.

주저 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지 못했고 그 시절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다만 지금은 그 지옥에서의 한 시절을 잊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시절의 결핍

아시아 아르젠토 감독의 <아리아>는 소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 영화다. 보편적 공감보다는 개인의 갈급함에 바짝 다가서 있다. 아리아는 오직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봐달라고 계속 외친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바르게 바라봐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장 영화들은 훌쩍 큰 주인공의 속내와 마음에 주목하고 달라진 현실을 보여주지만 <아리아>는 좀 다르다. 일련의 소동을 겪은 후에도 아리아의 생활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9살 소녀 아리아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엄마, 그리고 유명한 배우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두 언니 사이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아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관심, 이해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아리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가 크게 싸워 따로 살게 되고, 아리아는 엄마와 아빠의 집을 오가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



알려진 것처럼 아역배우 출신의 영화감독 아시아 아르젠토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감독 다리오 아르젠토와 배우 다리아 니콜로디 사이에서 태어났다. 몇몇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아리아>에는 그의 자전적 경험이 깔려 있다. 자식보다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평범한 가정의 아이처럼 충분한 사랑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시아 감독은 그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어린 시절 모두가 겪어왔을 오해(incompresa: 영화의 원제)와 사랑받고 싶은 갈증을 아리아라는 소녀를 통해 회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16mm 카메라를 통해 담아낸 화면의 질감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아련하고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한다. 또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알록달록한 색감과 배경은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아리아의 황량한 내면과 그 결핍을 달래기 위한 상상이라는 상황을 효과적

으로(어쩌면 역설적으로) 담아낸다. 빈티지한 가구와 분위기 역시 관객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적인 소품이다.

그 시절의 과잉

결핍이 심할수록 상상력은 풍부해지는 법이다.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감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영화의 질감은 아리아의 황량한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 아리아의 건조한 마음을 드러낸다.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 거리를 떠돌지만, 거리에서 만난 부랑자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아리아의 모습은 흡사 동화 속 성냥팔이 소녀처럼 보인다. 추위와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성냥팔이 소녀는 성냥을 하나씩 켜다. 성냥이 꺼질 때마다 소녀는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는 다른 환영에 빠진다. 하지만 성냥불은 너무 빨리 사라진다.

행복과 배려가 결핍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상상력이 넘쳐 과잉이 되는 법이다. 아리아가 처한 건조한 현실과 대비되는 화려하고 노골적인 색감은 너무나 건조해 숨을 쉬기 어려운 소녀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아리아의 엄마로 나오는 샤를로트 갱스부르는 여전히 건조하고, 깡마르고, 깊다. 세계적인 뮤지션 세르쥬 갱스부르와 배우 제인 버킨의 딸로 자라난 그의 성장기도 감독 아시아 아르젠토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아리아>의 지올리아 살레르노처럼 1985년 클로드 밀러의 성장 영화 <귀여운 반항아>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샤를로트 갱스부르의 성장 환경과 그의 영화 <귀여운 반항아>는 자연스럽게 한 소녀의 지독한 성장담 <아리아>와 오버랩되면서 묘한 기시감과 오라를 만들어낸다.

결국 어느 곳으로도 도망가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구심점으로 되돌아오는 현실, 아무런 추진력 없이 현실의 틈새를 부유하고 마는 소녀의 이야기는 그 뒷맛이 짝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해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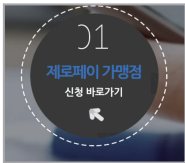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0%, 소득공제 40%

간편하다!

제로페이 서울

PC·스마트폰으로 가맹점 신청도 간편하게!

- 1 제로페이 홈페이지 검색**
zeropay.or.kr
 
※ 유사 사이트(zeropay.co.kr) 주의
- 2 회원가입**
'가맹점 등록 확인' 조회 ▶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
-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완료**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입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업로드

소비자는 QR코드로 결제도 손쉽게!

- 1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의
결제 앱 설치**
·설치 후, 결제계좌 등록
·이미 설치된 사용자는 기존 앱 사용

- 2 간편결제 앱에서
가맹점 QR코드 촬영**
- 3 결제 금액 및
비밀번호 입력확인**



소상공인 돕고!
소득공제 받고!

제로페이서울

※ 가맹점 신청: zeropay.or.kr





web⁺ 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인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특별한 재희



〈쓰다〉 25호 포스터. (웹진 [비유] 제공)

독서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간접경험이며,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이런 교훈적인 말을 비웃으며 살았지만, 요즘은 절실히 깨닫고 있다. 독서는 나를 바꾼다. 동물의 높은 지능과 식품 매대에 오르기까지 동물이 겪는 고통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과, 동물의 이름과 몇 가지와 습성 정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서로 채식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차별의 역사와 구체적 사례를 꾸준히 읽어온 여성이 생각하는 페미니즘과 자기 생활의 경험만으로 다른 여성의 삶을 가늠하려는 여성이 떠올리는 페미니즘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정신 질환이나 가난, 장애, 젠더 등 누군가가 인생을 걸고 싸워나가는 문제에 보다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더 다양한 책을 읽고 싶다. 무슨 위대한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시선을 던진다. 여성은 암전해야 옳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맞다. 편부모 자녀는 하나같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게이는 콧소리를 내야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폭력적인 시선으로 인하여 '어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모든 인간적인 매력과 개성을 드러낼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하기도 한다.

중간고사 국어 점수가 나왔다. 막판까지 헛갈렸던 두 문제가 다 정답을 피해 갔다. 매년 운이 좋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두 문제를 모두 놓치고 나니 왠지 가혹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았다. 거기다 담임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걸끄럽게 했다. 담임은 국어 점수가 유난히 낮은 애들을 다그치며 말했다.

“이 자식들아, 너희들 다 반성해. 지용이도 구십 점이 넘었는데 너네는 뭐 하는 거야?”



안 넘어가는 침을 억지로 삼켰다. 목구멍이 뻑뻑했다.

_진형민,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날〉 부분

주인공 한지용의 엄마는 인도인이다. 지용은 인도에 딱 한 번밖에 가본 적 없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편견 바깥에서 인정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듯하다. 지용은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체화하고 법적으로도 한국인이 틀림없지만, 그러한 그의 국어 실력이 담임의 눈에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지용이도 구십 점을 넘었는데”라는 말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한지용은 한지용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지용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평가받는다. 아이는 이 굴절된 시선을 삼키는 데 너무나 익숙하다.

담임은 나를 보고 ‘구구단을 19단까지 외우는 나라’ 출신이라 역시 다르다고 했다. 엄밀히 말해 나는 그 나라 출신이 아니고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수학 때문에 맨날 골머리를 썩었지만, 담임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칭찬이라 생각하고 넘기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_진형민,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날〉 부분

한편, 한지용네 국밥집 아르바이트생이자 같은 반인 박재희는 담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재희는 지용의 엄마에게 영어를 배우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어쩌면 지용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재희는 편견이 없고 용감하다. 이성과 마주 앉는 걸 부끄러워하는 지용에게 국밥을 맡아주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것도 아랑곳없이 자꾸 말도 건다. 더욱 인상적인 건, 재희가 지용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겪는 슬픔, 열등감, 체념 등을 위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용이 열등감에 엄마의 유창한 영어를 괜히 깎아내리려 할 때, 오히려 재희는 “넌 한국말 할 때 문법 다 맞게 말하나?”라며 단호히 받아친다. 당연하게도, 친구 재희의 관심은 지용의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아닌 지용의 생각이나 감정이다.

“한지용, 너 괜찮아?”

애는 왜 자꾸 나한테 괜찮냐고 묻는지 모르겠다.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_진형민,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날〉 부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지용에게 재희는 괜찮냐고 묻고 있다. 이처럼 여느 친구 사이애나 있을 법한 당연한 위로와 관심이 지용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이 당연한 우정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과 당연히 바라보아야 할 ‘인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담임은, 이 소설을 읽는 우리들과는 얼마나 다를까. ‘어떤 인간’ 혹은 ‘어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재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나 존재할까.

글 김잔디_ [비유] 편집자

뭔가 다른 ‘플레이’를 한다

공연티켓 예매사이트 ‘플레이티켓’

연극계에서 활동하는, 연극을 편애하는 이들이 즐겨 보는 웹진이 [연극in]이라면, 즐겨 찾는 티켓 예매사이트는 ‘플레이티켓’ 아닐까. 웹진 [연극in]을 찾는 이들에게 플레이티켓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파크부터 다 대기업이잖아요. 거기에 위메프(위 메이크 프라이스), 쿠팡, 티몬(티켓 몬스터) 같은 소셜 커머스 3사가 있고, 티켓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티켓수다, 타임티켓, 하하쿠폰 같은 곳도 있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학로티켓.com(한국소극장협회)도 있어요. 저희 플레이티켓이 3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작사와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제작사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자부합니다.”

플레이티켓 김효상 대표의 말이다. 플레이티켓은 공연기획·제작사 티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공연티켓 예매 사이트로, 2015년 11월 25일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공연기획·제작을 위한 사업기반을 다지고자 시작했던 사업이었다. 공연제작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대형 티켓 예매 사이트들이 이윤 증대를 위해 제작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작사의 입장을 반영한 사이트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티켓 예매사이트들이 대형콘서트나 라이선스 뮤지컬 같은 대극장 공연에 매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현장은 소극장이라 소극장 작품을 위주로 하는 티켓 예매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연극에 한정된 건 아니고, 소극장 작품이라면 뮤지컬, 국악, 클래식, 콘서트까지 다 다루는데, 아무래도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연극에 특화된 사이트처럼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티켓 판매에만 집중한 건 아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홍보마케팅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실제로도 과거엔 일간지나 방송 등의 언론 홍보가 티켓 판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온라인, SNS 등 홍보 채널이 다양해졌고, 티켓 예매사이트도 이러한 홍보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이티켓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있다. 플레이티켓은 지난 2019년 9월 예술경영지



플레이티켓(www.playticket.co.kr) 메인 화면.

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다. 이 펀딩의 핵심은 공연단체들과 아티스트들에게 개인 페이지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와 더불어 부가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극장 공연의 경우, 여전히 지인이나 마니아, 관계자가 관객의 대부분인데, 일반 관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것인가가 관건 같아요. 하지만 공연기획이라는 게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누적된 팔로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아티스트 개인이나 공연단체에서 운영하는 SNS도 있지만, 그게 티켓 예매사이트에 연동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개인과 단체에게 티켓 예매사이트 내에 페이지를 제공해서, 각자의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김효상 대표의 말을 마저 옮기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작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기존의 티켓 예매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기 위해 들이는 품에 더한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제작자가 직접 티켓 오픈 여부를 승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관리하기에는 더 용이한 사이트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소규모 기획사를 대상으로 적정한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BEP(손익분기점)를 맞출 수 있을지, 홍보 마케팅 채널로는 어떤 플랫폼이 유용한지, 무엇보다 창작자,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자신의 브랜드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는 소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그의 계획이 이뤄질 수 있을까. 예상할 수는 없다. 다만, 대형 예매사이트를 뒤로하고 플레이티켓에서만 단독으로 티켓을 오픈하는 공연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글 김일송_공연 칼럼니스트, 무대예술을 소개하는 공연문화 월간지 <싹플레이빌>과 서울무용센터에서 발행하는 무용 웹진 [춤:in] 편집장을 역임했다.

춤+여기

결국,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나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만난 사람, 차진엽



남산예술센터. ©Fotobee_양동민



웹진 [춤:in]

1.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제가 누구인지 생각해보았어요. 저는 차진엽인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나란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차진엽은 차진엽이 맞느냐를 찾아가는 사람인 거죠. 나를 새롭게 만 들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누구였나를 찾 아가는 중간 작업이에요.

2. 당신에게 이곳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극장은 제게 애증의 공간입니다. (웃음) 전엔, 답답하고 무언가 옥죄는 곳이라고 느끼곤 했 어요. 그래서 한동안 극장 밖에서 장소 특징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했지요. 그래도 그렇게 밖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극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극장이 주는 전율과 짜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또, 관객으로 극장에 있을 땐 객석에서 온전히 저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 는 경험을 해요. 공연을 보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상상의 나라를 무대에 펼 쳐놓기도 합니다.

3.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문득 드는 발상이나 영감. 머리에 있는 이미지나 잔상들이 일상 중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메모하고, 핸드폰에 음성을 녹음하는 등 생각의 파편들을 계속 수집하잖아요. 무대에 올라가고 공연이 시작되면 그런 파편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 의 프로시니엄 무대 안에서 파편들이 맞춰지죠. 신작 초연을 올리기 전에 문득 자신을 의심 할 때, 순간순간 자신이 만드는 장면이 불확실할 때, 다른 공연을 보러 가곤 해요. 공연장 객 석에서 제 작품에 잠가다 보면 꿈같은 상상이 펼쳐지고 무의식에 있던 생각들이 발현되는 것 같아요.

4. 이곳에서 춤은 어떤 모양인가요?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허무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상상했는데 연습실에 가니 현실인 거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상상하는 모습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극 장이라는 공간도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춤을 앞으로 놓을지 뒤로 놓을 지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의 춤은 타임머신처럼 과거로 가기도 하고 현재로 가기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떠다닐 수도 있어요.

취재 · 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차진엽은 안무가이며 무용수이다. 2012년 Collective A를 창단하여 활동 중이다. 현대무용을 기반 으로 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연결 짓기 위한 탐구를 하고 있다. 공간을 발굴하고 그곳에 몸을 담으며 다른 여러 장르와의 충돌을 통해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소소하고 아주 작은 작업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 · 폐회식 안무감독으로서 스펙터클한 작업도 했다.

※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문화
매뉴얼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3

- 전시 <한선주 : 고도를 기다리며>(~2.3)

4

- <2020 밀레니엄 신년음악회>
도서나눔 후원 음악회
- 연극 <바다 한가운데서>(~2.16)
-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3.1)

5

- 창작오페라 <김부장의 죽음>(~2.8)
- 연극 <명구씨, 참 열심히 산다>(~2.9)
- 낭만희극 <조선궁녀연모지정>(~2.16)

10

- 202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업설명회
<오! 색(Oh SSACC)>
-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토크콘서트 :
'여신님이 함께 하셔'(~2.10)

11

- 제11회ARKO한국창작음악제(양악부문)
- 가족공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서울(~2.16)
- 뮤지컬 <미드나잇 : 앤틀러스>(~5.3)
- 뮤지컬 <드라큘라>(~6.7)

12

- 제12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수상자 음악회
- 전시 <박기훈 : 공존>(~2.12)
- 연극 <개놈익스프레스>(~2.16)
- 전시 <김민정 : 사라지는 집>(~2.25)

17

18

- <곤지암 플루트 페스티벌 2020 –
My Valentine>
- 송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개관기념전시
<시작의 힘: The Power of Beginning>
(~2.18)
- 전시 <"역주행" – 다시, 아날로그>(~2.23)

19

- 이보 포고렐리치 피아노 리사이틀
- 전시 <It's fashion>(~2.19)
- 연극 <살인자>(~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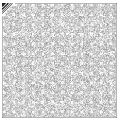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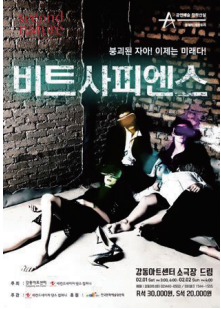
- 디나미스 앙상블 2020 정기연주회
- 2020 오르간 오딧세이
- 전시 <눈 깜짝할 새(IN A FLASH)>(~2.25)
- 어린이공연 <공룡애니멀쇼> – 서울(~3.1)
- 전시 <황그림 : 상실의 시대>(~3.8)

26

문화
이웃
공간



THU	FRI	SAT	SUN
		1 ■ 세컨드네이처 댄스 컴퍼니 <비트사피엔스>(~2.2) ■ 전시 <아담 팬들턴 : These Elements of Me>(~2.1)	2 ■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 서울(~2.2) ■ 연극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2.2) ■ 연극 <여자만세2>(~2.2) ■ 가족음악극 <템페스트>(~2.2) ■ 전시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2)
6 ■ 보스턴 심포니(~2.7) ■ NT Live <한 남자와 두 주인>(~2.9) ■ 연극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 (~2.9) ■ 박정자의 배우론 <노래처럼 말해줘> (~2.16) ■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19>(~4.23)	7 ■ 전시 <일신 + 日新 + greeting>(~2.7) ■ 창작오페라 <까마귀>(~2.8) ■ 뮤지컬 <마리 퀴리>(~3.29) ■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5.3)	8 ■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타악기 예술 놀이터> ■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클래식이야기 <너.클.리V> ■ NT Live <리먼 트릴로지>(~2.16) ■ 연극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 (~3.8)	9 ■ 전시 <매그넘 인 파리>(~2.9) ■ 뮤지컬 <빅 피쉬>(~2.9) ■ 가족뮤지컬 <장하 신은 고양이 비긴즈> (~2.9) ■ 연극 <햄릿 in the rain>(~2.9) ■ 연극 <육망이론: 배반의 심장>(~2.16)
13 ■ NT Live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2.19) ■ 조선일보 미술관 기획전 <김근태 : 숨, 겹> (~2.23)	14 ■ 예술의전당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3 <뱀파이어왕의 비밀>(~3.1) ■ 뮤지컬 <세계 문명 탐험대>(~3.1) ■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3.22) ■ 2020 정동극장 레퍼토리 <적벽>(~4.5) ■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 외쳐, 조선!> (~4.26)	15 ■ <레티시아모레노 with 뉴탱고퀸텟 피아졸라 콘서트> ■ 파리앙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 THE LAST> (~3.29) ■ 뮤지컬 <셜록홈즈: 사라진 아이들> (~4.19)	16 ■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서초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전시 <구파발산대탈>(~2.16) ■ 전시 <보통의 거짓말>(~2.16) ■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2.16) ■ 년버벌 퍼포먼스 공연 <웅알스>(~2.16) ■ 뮤지컬 <풀>(~2.16)
20 ■ 뮤지컬 <위월락유>(~2.20) ■ 연극 <신유치료자>(~2.23) ■ 연극 <리마인드>(~3.3)	21 ■ 2020 제9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다스 오케스터(Das Orchester)> ■ 2020 서울시향 모차르트 교향곡 제36번 린츠 ■ 크마앙상블의 해설이 있는 <협주곡의 밤> ■ 창작 뮤지컬 <다니엘>(~3.15) ■ 전시 <SOUNDMUSEUM: 사운드뮤지엄, 소리의 시간을 걷다>(~8.16)	22 ■ 2020 제9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그 밤과 친구들> ■ 제37회 유나이티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 뮤지컬 <요한계시록> 2020(~2.22) ■ 뮤지컬 <봄을 그대에게>(~3.1)	23 ■ 2020 제9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버스(Birth)> ■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심포지엄 <한일연극교류의 미래> ■ 예술의전당 스페셜데이콘서트 II <굿모닝 독도> ■ 전시 <박찬경 : 모임 Gathering>(~2.23) ■ 뮤지컬 <보디การ์ด> - 서울(~2.23) ■ 뮤지컬 <아이디> - 서울(~2.23)
27 ■ 2019 서울디자인브랜드전(~2.27) ■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2.27) ■ 사진전 <원춘호 : 천년 瓦>(~2.27)	28 ■ 전시 <소 품 락 희 小品樂喜 Thank you! 2019>(~2.28) ■ 퍼포먼스 연계 전시 <미술관의 개구쟁이들>(~2.28) ■ 이머시브공연 <위대한 개츠비>(~2.28) ■ 연극 <화전기>(~3.22) ■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5.17)	29 ■ 토요일은 청이 좋아 <퓨처 한센> ■ 전시 <석가산의 액션 뮤직>(~2.29) ■ 뮤지컬 <세례요한>(~2.29) ■ 전시 <승효상 2P : 감성의 지형>(~2.29) ■ 뮤지컬 <천로역정>(~2.29) ■ <태권쇼 - 태권무무혼>(~2.29)	



세컨드네이처 댄스 컴퍼니 <비트사피엔스>
 자아가 붕괴된 미래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인간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트화된(혹은 조각난) 미래의 인류 '비트 사피엔스'를 현실에 소환, 획일화된 미래 인간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일시 2월 1일(토)~2일(일)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4시
장소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440-0500



창작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묻는다. 톨스토이가 묘사하는 평범한 인간의 삶과 죽음은 마치 오늘의 일처럼 다가온다. <김부장의 죽음>은 우리 시대의 이반 일리치와 그의 주변 사람들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의 사람, 혹은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일시 2월 5일(수)~8일(토)
 수~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1544-1555



낭만희극 <조선공녀연모지정>
 모태솔로 공익근무요원과 책으로만 연애를 배운 학구파 귀신들의 곡소리 나게 오싹한 원귀 인연 맺어주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일시 2월 5일(수)~16일(일) 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4시
장소 후암스테이지 1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10-7551-6491



박정자의 배우론 <노래처럼 말해줘>

한 여배우가 있다. 그는 1963년 데뷔하여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공연을 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카리스마 배우 박정자, 그가 들려주는 무대 뒤 삶의 이야기는 비로소 무대 위에서 완성된다.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 박정자의 내레이션, 피아니스트 허대욱과 대화하듯 배치된 음악들은 관객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일시 2월 6일(목)~16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수 오후 3시·7시 30분,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8일 오후 6시, 15일 오후 2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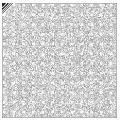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6만 원
문의 02-546-7842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19>

<볼로냐 국제 일러스트 원화전>은 1967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지의 젊고 재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성공과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매년 평균 70여 개국의 3천 명이 넘는 아티스트가 이 전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최종 70~80여 명의 일러스트 작가들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하고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아시아 투어에 서울이 합류하는 첫해로, 일러스트 작가 76명의 원화 3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일시 2월 6일(목)~4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7시(월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2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문의 02-837-6611



창작오페라 <까마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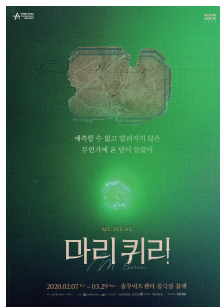
부모는 경제적 이유로 가족의 동반자살을 계획하고, 어린 막내는 살리고자 놀이공원에 유 기한다. 하지만 동반자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세월이 흘러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가족은 어느 날 잃어버린 막내를 찾게 된다. 천천히 풀려가는 이야기의 실타래에서 가족은 마음 속 깊이 감추려 했던 진실에 점점 가까이 다 가 간다. 과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 까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일시 2월 7일(금)~8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VIP석 9만 원, R석 6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572-6773



뮤지컬 <마리 퀴리>

위대한 과학 업적으로 꼽히는 '라듐'의 발견. 청록색의 빛을 가진 '라듐'에 쏟아지는 관심과 열광적인 반응.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 자신의 연구가 초래한 비극적 진실을 목도한 마리 퀴리의 선택은? 좌절에 맞서는 한 인간의 숭고한 용기와 삶의 가치를 뒤흔어 담아낸다.

일시 2월 7일(금)~3월 29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1577-3363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타악기 예술 놀이터>

공연과 해설이 있는 타악기 도슨트 참여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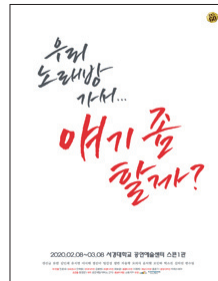
일시 2월 8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900-7766,

<http://sg.seoulcitizenshall.kr>



연극 <우리 노래방 가서... 애기 좀 할까?>

2008년 초연한 작품으로,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청춘과 가족애를 다룬 이야기이다. '우리 는 왜 노래를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멀리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일시 2월 8일(토)~3월 8일(일) 평일 오후 8 시, 토 오후 3시·6시 30분, 일·공휴 일 오후 2시·5시 30분(월 공연 없음, 2월 8일 오후 6시 30분)

장소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킨1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6498-0403



가족뮤지컬 <장화 신은 고양이 비긴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가치관을 일깨워주는 가족 뮤지컬이다. 19명의 출연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무대를 펼친다. 공연이 끝 난 후 15분간 싱어롱 타임 '미야옹~콘서트'가 이어진다.

일시 ~2월 9일(일) 화~금 오전 11시·오후 2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 시·4시 30분(월 공연 없음, 4·5일 오 전 11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6만 6천 원,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02-588-7708



연극 <햄릿 in the r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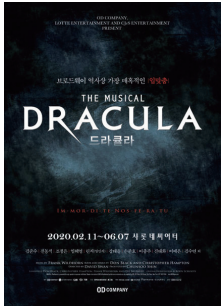
원작의 줄거리와 대사를 최대한 충실하게 살 려낸, 서사와 언어의 참맛에 가까운 작품이다. 배우들의 대사과 목소리에 집중하여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동시에 함축적인 움직임과 마음, 노래들이 더해지며 독창적이고 고 유한 맛을 지닌 새로운 햄릿을 선보인다.

일시 ~2월 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나은씨어터

관람료 3만 원

문의 070-4412-1526



뮤지컬 <드라큘라>

죽음을 초월한 세기의 러브스토리를 입체적인 무대예술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뮤지컬 <드라큘라>가 다시 돌아온다. 19세기 유럽의 고딕풍 디자인, 4중 회전 턴테이블과 플라잉 기술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연출로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서정적이고 애절한 넘버가 감동을 더한다.

일시 2월 11일(화)~6월 7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
(월 공연 없음, 2월 12일 오후 8시)

장소 샤롯데씨어터

관람료 화~목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6만 원
금·주말·공휴일 VI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10만 원, A석 7만 원

문의 1588-5212



연극 <아버지와 나와 형매와>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묘사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부모자식 간의 사건과 가족들의 기억들을 섬세하게 풀어어나가며 깊은 울림을 준다.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힘'이 있는 작품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경계,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엇인지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일시 2월 14일(금)~3월 22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6시 30분,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5만 원, A석 4만 원

문의 02-399-1000



2020 정동극장 레퍼토리 <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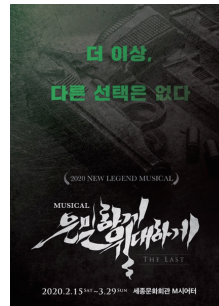
판소리 <적벽가>라는 흥미진진한 텍스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무대화하여 적벽대전의 스펙터클한 서사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펼쳐 보인다. 무대 위 공간의 한계를 상상의 영역으로 넓히며 특유의 에너지를 전한다.

일시 2월 14일(금)~4월 5일(일)
화~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정동극장 서울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02-751-1500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 THE LAST>

북한 엘리트 요원이자 최고위층 간부의 아들인 원류환, 그 못지않은 실력자 리해랑, 공화국 사상 최연소 남파간첩 리해진. 이들의 임무는 동네 바보, 가수 지망생,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평범한 동네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가던 어느 날,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은밀하고 위대한 임무가 내려진다. 이전보다 한층 화려해진 액션과 군무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월 15일(토)~3월 2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8만 8천 원, S석 6만 6천 원, A석 4만 4천 원

문의 070-4355-0010



뮤지컬 <셜록홈즈: 사라진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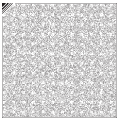
세기의 미스터리 책 더 리퍼 연쇄살인 사건을 쫓는 셜록 홈즈를 팽팽한 긴장감과 매혹적인 스토리로 그려낸다. 숨 가쁜 추적을 화려한 무대와 영상, 속도감 넘치는 음악, 더욱 치밀해진 스토리로 풀어낸다.

일시 2월 15일(토)~4월 1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시야 제한석 7만 원

문의 1577-3363



앨런 플레처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KT&G 상상마당은 일곱 번째 20세기 가장 시리즈로, 현대적 의미의 그래픽 디자인을 영국에 처음 선보인 영국 디자인의 신화, 앨런 플레처를 소개한다. 그의 50년 디자인 인생을 총망라하여 보여주는 회고전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남다른 시각의 작품들을 통해 20세기 영국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일시 ~2월 16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금·토 오후 8시까지)

장소 KT&G 상상마당 홍대 갤러리

관람료 성인 9천 원, 청소년 4천 원

문의 02-330-6229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개관기념전시

〈시작의 힘: The Power of Begi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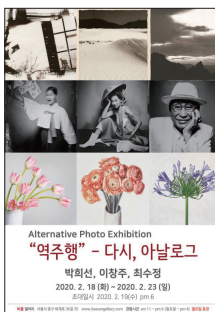
시간과 공간이 축적해온 강동의 자산을 '시작'이라는 콘셉트로 풀어 강동의 가치와 공명하는 작가들을 선별하고, 각기 다른 시각적 어휘를 구사하는 여러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했다.

일시 ~2월 18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장소 강동아트센터 아트랑 Space #1, #2, #3

관람료 5천 원

문의 02-440-0500



전시 <“역주행” - 다시, 아날로그>

전시에 참여하는 박희선, 이창주, 최수정 3명의 작가는 시대를 역주행하여 19세기의 사진술로 작업하는 이유에 대해 “작업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더 중시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비록 느리고 고된 작업이지만, 아날로그 프로세스 특성상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작업 과정에서 느끼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작품에 내재되기 때문이다.

일시 2월 18일(화)~23일(일) 오전 11시~오후 6시(월 휴관, 일 오후 4시까지)

장소 비움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70-4227-0222



2020 제9회 현대일본회곡 낭독공연

일본의 최신 회곡을 한국의 연출가와 배우들이 낭독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한일연극교류협회는 양국의 현대연극 작품 교류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연극 경향을 살펴보고자 격년으로 회곡집을 발간해왔다. 아홉 번째로 발간되는 올해 회곡집 중 세 편이 이번 낭독공연 무대에 오른다.

일시 2월 21일(금)~23일(일)

—공연: 21일 오후 7시 30분, 22일~23일 오후 3시

—심포지엄: 23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무료(남산예술센터 홈페이지 사전 예약 필수)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창작 뮤지컬 <다니엘>

미스터리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이든', 친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신병원에 잠입한 '다니엘'. 두 남자의 진한 우정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시 2월 21일(금)~3월 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스24스테이지 3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10-8317-7522



전시 <박찬경 : 모임 Gath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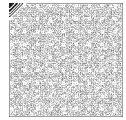
한국미술과 재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근대성의 총체적인 반성을 요구하는 재난 이후 또는 그 와중에 미술은 어떤 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전시는 급속도로 희박해져가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이 어떻게 새로운 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일시 ~2월 23일(일) 월~목·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5전시실

관람료 4천 원

문의 02-3701-9500



2019 서울디자인브랜드전

서울 생활의 품격을 높일 디자이너와 공예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디자인·공예 산업의 교류와 지식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서울디자인브랜드 통합 플랫폼 행사이다. 역량 있는 디자이너와 공예가의 등용 및 진출 지원과 비즈니스 판로 개척, 디자인·공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일시 ~2월 27일(목)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02-2153-0000, www.ddpstore.or.kr



전시 <소품락회 小品樂喜>

Thank you!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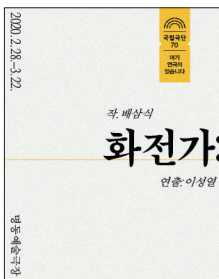
한국 미술 작가들의 소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이다. 김창열, 오세열, 우국원, 채지민, 변웅필, 윤상운 등 다수의 인기 작가가 참여한다. 정교한 터치와 세밀한 구성 등 대작 못지않은 공력을 쏟아 부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일시 ~2월 28일(금) 월~토 오전 10시~
오후 6시 30분(일·공휴일 휴관)

장소 갤러리조은

관람료 무료

문의 02-790-5889



연극 <화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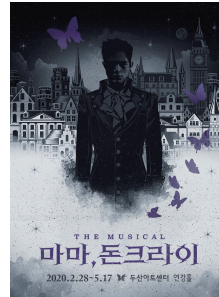
봄의 생기가 두 빵을 스치는 날, 뿔뿔이 흩어져 있던 '김 씨' 집안의 아홉 여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예상치 못한 봄 소풍 앞에 예쁜 옷과 맛있는 음식을 꺼내놓는 지금, 사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돌아오지 않는 이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공존한다. 삶의 생채기를 몇 번이고 삼켜냈지만 다시 사소한 일상을 아름답게 꾸려내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일시 2월 28일(금)~3월 22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1644-2003



뮤지컬 <마마, 돈크라이>

사랑을 얻고 싶은 인간 대 죽음을 갈망하는 뱀 파이어. 시간을 넘나드는 신선한 전개, 서로 다른 욕망을 좇는 두 남자의 치밀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객석을 메우는 리드미컬한 록 사운드, 러닝 타임 100분을 꽉 채우는 몽환적인 멜로디, 독보적인 매력의 중독성 강한 넘버가 깊은 여운을 더한다.

일시 2월 28일(금)~5월 17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1577-3363



토요일은 청이 좋아 <퓨처 셉>

미래와 꿈을 주제로 한 신나는 공연과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시 2월 29일(토) 오후 1시~5시
(공연 오후 2시~3시)

장소 시민청(B1) 활짝라운지,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www.seoulcitizenshall.kr



전시 <석가산의 액션 뮤직>

지난해 백남준 탄생 88주기를 기념하여 <석가산의 액션 뮤직>전이 열린다. 백남준을 둘러싼 '기억'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 전시는, 예술가 백남준 이전에 인간 백남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백남준 예술 세계의 토대가 되는 어린 시절의 공간과 시간의 단면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금 여기로 연결점을 찾고자 한다.

일시 ~2월 29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매주 월 휴관)

장소 백남준기념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2124-8939



ONE MAN, TWO GUVNORS

한 남자와 두 주인

연출 니컬러스 하이트너 | 주연 제임스 코든

Photography: James Cornwell by Johan Persson



THE LEHMAN TRILOGY

리먼 트릴로지

연출 샘 멘데스 | 주연 사이먼 러셀 빌, 애덤 고들리, 벤 마일스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연출 마리안느 엘리엇 | 원작 마크 해던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National Theatre

NEAL STREET PRODUCTIONS

BY EXPERIENCE HD

ARTS COUNCIL ENGLAND

Photograph: Luke Winterson by Hugo Gosselens

2.6(목)-2.19(수) 국립극장 | 달오름
전석 20,000원 |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월 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이희문 씨는 평소 관심있게 보던 분이려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준일 기사를 읽고 영감을 찾아봤습니다. 독자작품도 서해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문화+서울을 처음 봤는데 내용이 알차네요. 앞으로 꼭 찾아볼게요!

* 본지는 [문화+서울] 웹진 <http://magazine.sfac.or.kr>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입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엽서

이성희 님(서울시 동대문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이희문 씨는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분이려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준일 씨 기사를 읽고 영감을 찾아봤습니다. 표지 작품도 새해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문화+서울]을 처음 봤는데 내용이 알차네요. 앞으로 꼭
찾아볼게요!

편집 후기

바이러스가 폭풍같이 몰아치는 2월이 무탈하게 지나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세요~~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2월호 문화플러스서울은 29쪽지.

하루에 한 쪽지씩 읽으면 2월도 끝이 나네요.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2002

#월드컵아니죠_이천이십년이월이죠_그해여름처럼뜨거운2020보내시길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같은 연극을 보고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서 동시대임을 확인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교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